

리아호나

회복력이 강한
자녀로
키우는 법, 10쪽

언제가 결혼하기에
적절한 때인가? 38쪽

선한 사람은
가면을 쓰지 않는다, 48쪽

부활절 활동: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기, 68쪽



“우리는 눈이
멀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보이드 케이 파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선택 의지와 통제”,
성도의 빛, 1983년 7월호,
102쪽.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잠잠하라 고요하라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활동 촉진

특집 기사

- 10 자녀를 회복력이 강한 아이로 키우기
라일 제이 버럽
자녀들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회복력이 필요하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도와 이 중요한 자질을 갖추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여기 있다.
- 16 년 이제 자유란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이생에서 우리는 어떤 권세에 순종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인가, 아니면 사탄의 권세인가.
- 20 자립의 원리대로 생활하기
래리 힐러, 캐더린 에이치 올슨
자립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시기에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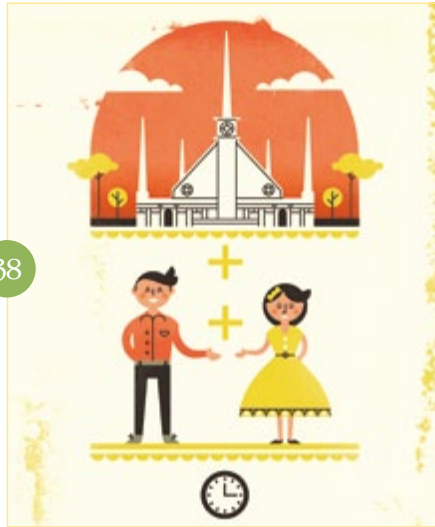
- 22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힘
마이클 존 유 테 장로
경전을 매일 읽으면 영적인 힘을 기르고 악마의 간계를 꿰뚫어볼 수 있을 것이다.
- 26 십일조에서 얻는 축복
다섯 명의 회원이 십일조의 범을 지키는 데서 얻은 간증을 나눈다.
- 30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부활절 전통 만들기
다이앤 엘 맥검
속죄는 부활절의 핵심이다. 의로운 전통은 우리가 구주께서 주신 이 은사에 집중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교회 본부 기사

- 8 10월 연차 대회 노트
- 33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가족의 중요성
- 34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지뢰밭에서 구조됨
러셀 웨스트가드

표지
사진 삽화: 코디 벨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먼드
앞 표지 안쪽 사진: 미국 오리건주 히세타 헤드
등대, 로이스 베이 © Getty Images.

청년 성인



38

38 결혼하기에 적절한 때

앨리사 스트룡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장소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때가 바로 적절한 때이다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배를 흔들지 마세요.

청소년

42 해답을 찾아서

44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영의 세계 혹은 부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까? 다음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48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

쿠엔틴 엘 룡 장르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51 나를 믿어 준 형

데이비드 덕슨

만일 댄 형이 다른 형들처럼 내 노래를 놀렸더라면, 나는 분명 평생토록 마음속으로만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5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저는 가족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앤 엠 딘

54 감춰진 위험

조슈아 제이 퍼키

계명은 선택의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과 성공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를 선사한다.

57 선교 임지에서: 간증으로 감동받다

마이클 하큰

어린이



70

58 유적지 탐방: 물몬경이 출판된 곳

젠 핀보로우

60 릭의 새 책

로라 버드

릭은 경전을 들 때 손이 아프신 버드 자매님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나요?

62 메건의 양들

줄리나 케이 밀스

메건은 기발한 방법으로 양을 돌보고 친근감을 키웠다.

64 특별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르

65 그분은 살아 계시니까요

머리빅 파시게이, 머리사 위드슨

와토이는 학교 선생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나눌 수 있었다.

66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68 부활절 그림

이 퍼즐을 이용해 부활절 초 읽기를 하세요.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81 선지자 초상화: 존 테일러



48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책임회장: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토도르프
심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율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앨 쿡, 디 도드 크리스토퍼슨, 날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크 에이 카든
고문: 세인 엠 보웬, 브래들리 디 포스터, 크리스토퍼 콜먼 이세, 앤서니 디 퍼킨스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외너
가족 및 회원 지원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린 포터 건트
출판 보조: 알리사 켈테노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잔 배렛, 라이언 카,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맥워드, 매튜 디 플리튼, 민디 라에 프리드만, 히카리 로프타스, 리아 맥클라넬, 마이클 알 모리스, 리처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줄리아 우드버리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팀: 자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루스, 시 킴벌 보트, 토마스 차일드, 케리 린 시 해런, 콜린 킵클러, 에릭 피 존슨, 스캇 엠 무이, 브래드 테어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숄프 브릿지,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버, 지니 제이 닐슨, 가일 터테 러퍼티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내부 책임자: 크레이크 케이 세지윅

배포 책임자: 예반 월슨

통 관: 제556호, 제50권, 제3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3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형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시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잡지)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루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March 2013 Vol. 37 No. 3.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3688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사진: 김화희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힘”, 22쪽: 이 기사의 한 부분인 “말씀의 신성함”을 가족과 함께 읽고 경전이 어떻게 우리의 쇠막대가 되는지 토론한다. 식구들에게 경전의 힘을 느꼈던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혹은 어린 자녀들에게 영감을 주는 경전 이야기를 들려준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겠다는 데 장로의 도전 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44쪽: 기사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 또 죽음이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같은 지식은 어떻게 우리가 내리는 각 결정을 중요하게

만드는지 질문해 볼 수 있다. 구원의 계획에 대해 간증하면서 마친다.

“메건의 양들”, 62쪽: 메건과 메건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메건이 마지막에 왜 그토록 기뻐했는지 이야기한다. 또한 모사이아서 2장 17~18절을 읽고, 봉사를 통해 얻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해도 좋다. 가족이 서로, 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순종합니다”(어린이 노래책, 71쪽)와 같은 봉사에 관한 노래를 부른 후 마친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 | | | |
|-------------------------------|-------------------------------------|--------------|
| 가르침, 33 | 사망, 44 | 외설물, 48 |
| 가족, 9, 10, 33, 34, 38, 51, 52 | 선교 사업, 34, 57 | 우정, 62 |
| 간증, 65 | 선택의지, 16 | 자립, 20 |
| 결혼, 38 | 속죄, 16, 30 | 재능, 51 |
| 경전 공부, 22 | 순종, 16, 36, 54 | 존 테일러, 81 |
| 고결성, 48 | 십일조, 26, 35, 37 | 축복, 26, 35 |
| 기쁨, 8 | 양육, 10 | 친절, 60 |
| 물문경, 22, 58 | 연차 대화, 10 | 평화, 4 |
| 미디어, 48 | 영감, 36 | 활동 촉진, 7, 80 |
| 봉사, 36, 62 | 영의 세계, 44 | 회복력, 10 |
| 부활, 30, 44 | 예수 그리스도, 16, 64, 65, 66, 68, 70, 73 | |
| 부활절, 30, 68, 70, 73 | |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잠잠하라 고요하라

몇 년 전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을 끝낸 저는 연세가 지긋한 미망인 한 분을 뵈러 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솔트레이크시티 요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저는 곧장 차를 몰아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분의 병실에 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직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그분이 계신 곳을 물은 후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 다정한 미망인의 여동생과 다른 친구들이 문병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남성이 재판기에서 청량음료를 사려고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힐끗보더니 “아니, 톰 몬슨 씨 아니세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님은 헤밍웨이 집안 분처럼 보이네요.” 하고 제가 대답하자, 그는 자신이 알프레드 유진 헤밍웨이의 아들인 스티븐 헤밍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진이라고 불렀던 알프레드 유진 헤밍웨이는 제가 오래전에 감독으로 봉사할 때 제 보좌였습니다. 스티븐은 부친이 같은 요양원에 계시며 임종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진 형제가 제 이름을 계속 불려서, 그의 가족은 저에게 연락하려 했으나 전화번호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곧바로 양해를 구하고 스티븐과 함께 제 옛 보좌의 병실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자녀도 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몇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식구들은 진 형제가 죽기 전에 저를 만날 수 있기를 학수고대했기 때문에, 휴게실에서 저와 스티븐이 만남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면 제가 휴게실에 있었던 그 시각에 스티븐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진 형제가 그 요양원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 형제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평화의 영이 가득했습니다. 기분 좋은 만남 후에 저는 병실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저는 진 헤밍웨이가 아들과 저에게서 축복을 받은 지 20분 후에 임종했다는 소식을 전화 통화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향력에 대한 감사 기도를 조용히 드렸습니다. 그분의 인도로 저는 그 요양원에 가게 되었으며, 또 사랑하는 친구 알프레드 유진 헤밍웨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의 파스함을 느끼며 겸손한 기도와 신권 축복을 하는 동안, 진 헤밍웨이 형제는 찬송가 “주여 큰 폭풍우 일고”의 가사를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축복의 주여

이제는 떠나지 마소서

행운의 항구에 기항하여

기쁘게 편히 쉬리

저는 여전히 그 찬송가를 좋아하며, 그 노래가 주는 위안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바다나 귀신이나 인간

그 어느 것들의 진노이든지

대양과 천지의 주 계시는

그 배를 삼킬 파도 없도다

모두 순종할 잠잠하란

주의 뜻¹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때 오는 눈물과 시련을 통해, 두려움과 슬픔을 통해,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을 통해 삶은 영원하다는 확신이 옵니다. 우리 주님이신 구주께서는 그 사실에 대한 살아 계신 증인이십니다.² 경전에 기록된 그분의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편 46:10) 이것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

주

1. “주여 큰 폭풍우 일고”, 찬송가, 59장.

2. Richard L. Evans, “So Let Us Live to Live Forever,” *New Era*, July 1971, 18 참조.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이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냈거나 시련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문슨 회장님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음 경전 구절 중 하나를 나눈다. 욥기 19:25~26; 고린도전서 15:19~22; 모사이야서 24:13~15; 교리와 성약 122:7~9 성신의 느낌에 따라 여러분이 시련을 겪을 때 구주께서 주신 평화에 대해 간증해도 좋다.

제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켈시 르두

오빠의 기일에, 오빠가 죽은 이후의 내 삶을 돌아보았다. 극심한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떠올렸다.

예전에 나는 어떻게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축복을 가져다준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깊은 상처를 준 그 일에 대해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지 이해가 안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에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그날 나는 한밤중에 여태껏 겪어 보지 못한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숨막히는 고통이 엄습했다.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치유의 권능에 대해 배웠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신앙이 시험받고 있었다. 나는 진정으로 믿었던 것일까? 하나님 아버지께 부디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도록 간청했다.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평화와 위안, 사랑의 느낌이 내 온몸을 감쌌다. 마치 하나님이 꼭 안아 주시며 극심한 고통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아직도 오빠가 그리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경험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실재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단지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켈시 르두는 미국 미네소타 주에 산다.

조용하게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몬슨 회장님은 우리가 경건하고 조용하게 있을 때 평화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더 강한 간증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을 더 잘 떠올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래의 어린이 중에서 누가 조용히 있지요?



조용하게 있을 방법을 하나 적어 보거나 부모님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후 이번 주에 시간을 내어 그렇게 해 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 여러분의 느낌과 성신의 속삭임을 일지에 적으면 좋습니다.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reliefsociety.lds.org에 접속한다.



신앙, 가족, 구제

활동 촉진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격려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손을 뻗어 그들을 보다 높은 곳과 더 좋은 길로 들어올립니다. ……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며, 주님의 심부름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¹

오래 전에 라벤 콜과 그녀의 방문 교육 동반자가 저활동 자매를 방문했다. 문을 두드리자 한 젊은 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얼핏 아픈 사람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술에 취한 것이었음을 그들은 곧 알아차렸다. 방문 교사들은 어려움을 겪는 이 젊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집을 나선 후 그들은 “그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그녀를 도울 책임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그녀를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선한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그 자매에게 상호부조회에 참석하도록 권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정기적으로 참석하게 되었으며, 격려를 받아, 남편과 딸을 데리고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남편은 성신을 느꼈으며, “감독님이 제안하신 대로 할게요.”라고 말했다. 이제 그들은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지내며, 성전에서 인봉되었다.²



성구에서

제3니파이 18:32; 교리와 성약 84:106; 138:56

주

1. 토마스 에스 문슨, “봉사, 신성한 부름”,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54, 56쪽.
2. 라벤 콜의 딸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게 보낸 서신.
3. 조셉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107쪽.
4. 엘리자 알 스노우, *내 왕국에 속한 딸들*, 83쪽.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돕는 것은 언제나 후기 성도와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과업 중 하나였다.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서로에 대해 동정심을 가집시다. …… 무엇이 옳은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³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엘리자 알 스노우는 미국 유타주 옥든에 사는 자매들이 서로를 강화하고자 노력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이 [기록] 책에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바쳤음을 압니다.” 하지만 복음에 냉담해진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으려고 하는 자매들의 노력은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 스노우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조셉 스미스 회장님은 상호부조회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조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여러분의 신앙과 친절, 선한 행실과 말은 또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나는 저활동 자매에게 상호부조회 모임에 함께 참석하자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2. 내가 돌보는 자매들은 나에게 복음에 관한 질문을 편하게 하는가?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2년 10월 연차 대회를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앞으로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께서 주신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에서 발췌한 이야기

이 순간을 즐겁게 보내십시오

제 아내 해리엇과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야외로 나가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은 참 즐겁습니다. 좋아하는 자전거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멀리 또는 빨리 달리느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경쟁하며 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며 더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제 훌륭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저의 이런 제안에 대한 아내의 대답은 언제나 매우 친절하면서도 분명하고 직설적입니다. 아내는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건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을 즐겁게 보내세요.”

정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

여정에서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제가 아내와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완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감미롭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지점만을 보느라 눈앞에 있는 즐겁고 기쁜 순간들을 망쳐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마지막 음이 울리고 나서야 그 음악을 진정으로 감상하고 즐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작품 전체에 흐르는 다양한 음과 선율, 화음을 듣고 이으며 감상합니다.

기도할 때 “아멘”이라는 기도의 끝 부분만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의 어떤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행복을 기다려선 안 됩니다. 그 순간이 오면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을 돌아볼 때에만 인생의 행복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시편 118:24)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후회와 결심에 관하여”,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23~24쪽.

생각해볼 질문

-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 주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기쁘게 해 줄 수 있을까?
- 감사와 기쁨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일지에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이 주제에 관한 추가 자료: *신앙에 충실함*(2004),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134~140쪽; LDS.org의 복음 주제에서 “감사”, “행복”, “회개”, 리처드 지 스코트, “인생에서 기쁨을 찾음”,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24~26쪽.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하시려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하십시오.

유사점 찾기: 결혼과 가족



연차 대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몇몇 주제에 관해 한 명 이상의 연사가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네 명의 연사가 전한 결혼과 가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른 유사점을 찾아보십시오.

-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법적으로 합당하게 결혼하여 합하는 것은 이 지구를 물려받을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가 될 뿐 아니라, 지상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¹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자녀는 결혼 생활과 목표에서 하나가 된 부모에게서 양육받으며 정서적, 개인적인 힘을 받아야 합니다.”²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친절과 예의의 토대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대중이 지닌 일반적인 태도가 가정 파괴에 비례하여 나빠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³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결혼의 중요성과 목적을 경시하는 사회에서 결혼 관계를 강화하려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⁴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

1. 엘 톰 페리, “훌륭한 부모가 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27쪽.
2. 델린 에이치 옥스, “아이들을 보호하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45쪽.
3. 쿠엔틴 엘 쿡,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7쪽.
4.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49~50쪽.

기독교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1. “기독교인은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
2.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 은혜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남을 용서하고, 계명을 지키며,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3.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4.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을 압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더욱 더 그리스도와 같은 기독교인이 되어”,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90쪽.

선지자의 약속

“구주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후회의 눈물을 씻어 주실 수 있으며, 죄의 짐을 내려놓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속죄는 우리가 과거를 뒤로하고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과 더 잘하겠다는 결의, 특히 더 나아지겠다는 다짐으로 나아가게 해 줍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후회와 결심에 관하여”,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24쪽.

자녀를 회복력이 강한 아이로 키우기



자녀가 실패를 얼마나 잘
이겨 내는가 하는 문제는
부모가 자녀의 회복력에
관한 태도와 역량을
얼마나 잘 발전시키도록
도왔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라일 제이 버럽
LDS 가족 서비스

인 생은 시련으로 가득하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 불”(이사야 48:10)에서 택하셨고,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 시험을 받[게]”(교리와 성약 101:4) 되며, 역경은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우리의] 유익”(교리와 성약 122:7)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꽤 무섭게 들린다. 여러분은 아마 ‘어떻게 시련을 겪으면서도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지?’ 하고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경전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친다.(고린도후서 12:10; 히브리서 5:7~8; 교리와 성약 127:2 참조)

나는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들을 상담할 때, 정서적인 문제의 가장 공통된 원인은 회복력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 정서적인 문제를 전혀 겪어 본 적이 없는 똑똑하고 재능있는 선교사에게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신권 지도자들은 종종 왜 그런지 의아해했다. 대부분 그 이유는 단지 그 선교사가 시련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 원리들을 가르치면, 그러한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회복력에 대한 태도

회복력(resilience)이란 말은 원래 어떤 물체가 휘어지고 늘러지거나 압축된 후 그 모양이나 위치로 되돌아가려는 힘과 관련이 있었다. 지금은 시련을 겪은 후 다시 재기하는 능력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말을 쓴다.

우리는 시련과 회복력에 대해 두 가지를 알고 있다. 첫째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니파이후서 2:11)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얻으려면, 대개 커다란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자녀는 회복할 수 있을 때 이 두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들은 삶이 어렵고 늘 변화하는 것임을 알지만, 그 같은 시련과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실수와 약점을 더 배울 기회로 여기며,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라고 여긴다.

자녀는 회복력을 키우는 것이 노력, 상상, 지식, 기술을 통해 사는 동안 얻게 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까지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며 그들은 다루기가 불가능한 일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회복력에는 인생과 사람 속에서 큰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목적의식이 있는 자녀는 좌절과 포기하라는 압력을 극복할 수 있다.

자녀는



회복력이 더 강해지면 자신을 인도하는 심오한 가치, 즉 자애, 유덕, 고결성, 정직, 직업윤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동참할 것이며, 소외감을 느끼고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에 가치를 위해 헌신하기로 할 것이다.

복음은 이러한 가치와 인식을 가르치고 강화한다.

유년 시절에 배운 회복력에 관한 교훈

어린 시절에 나와 내 형제자매들은 부모님과 이웃, 선생님들과 교회 지도자 등 주위의 많은 어른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웠다. 이 다섯 가지 원리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1. 특권에 대한 대가를 치름
나는 내가 제시간에 귀가하면 그 후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2. 수확의 법칙
나는 돈이 필요하면 신문 배달을 해서 매달 돈을 모아야 했다.
3. 개인적인 책임과 의무
나는 숙제와 과학 전시회 계획을 마쳐야 했으며, 그 결과 보이스카우트 공로 배지를 받았다.
4. 보상의 법칙
나는 사과하고 잘못을 고침으로써 그릇된 행동을 만회할 수 있었다. 이따금씩 부모님은 내가 잡초 뽑기와 같은 집안일을 마치면 보상하겠다고 제안하셨다.
5. 실수로부터 배우기
침대 정돈을 잘 못했거나 접시를 깨끗이 닦지 않았거나 잡초를 제대로 뽑지 않았다면, 나는 다시 올바르게 일을 마무리해야 했다.

-라일 제이 버럽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완벽주의

회복력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온전해지라는 계명을 오해하는 것이다.(마태복음 5:48 참조) 이런 오해야말로 새로운 선교사들의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공통된 요소이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고 싶어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은 연약하고 단순한 종들을 통해 일하신다는(교리와 성약 1:19~23 참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온전해지려 힘쓰는 것은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려 힘쓸 때 비로소 그분의 속죄를 통해 완전히 발전하거나 온전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영문 마태복음 5:48, 주석 b 참조)

이런 오해는 또한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것, 곧 그들의 가치는 재능과 성취에 좌우된다는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교회와 가정에서도 청소년들은 또래들이 어떤 면에 뛰어나서 인정과 칭찬, 찬사를 받는 것을 본다. 따라서 그들은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가에 기초해서 무엇을 할지 선택한다. 자신이 없을 때는 미루고,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하며,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자신의 성취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긴다. 완벽주의는 심술궂은 감독관이 되어 그들의 회복력을 깎아내린다.

예를 들어,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한 선교사들은 훈련을 받을 때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언어를 구사하는 법을 배우거나 복음 개념을 가르치는 동안, 또는 그 밖의 선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실수를 하게 된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그동안 회복력을 키우지 못했다면 좌절하고 중압감을 느낄 것이다.

자녀가 회복력을 키우도록 도우려면

그렇다면 자녀가 회복력을 키우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 관한 모형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큰 사랑과 존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잠재력(모세서 1:39)과 큰 가치(교리와 성약 18:10)를 일깨워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분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알게 하시고(교리와 성약 107:84 참조),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며(니파이후서 2:15~16 참조), 우리의 선택을 존중(교리와 성약 130:20)하신다. 그분은 잘못을 고치라고 가르침과 지침(교리와 성약 1:25~26)을 주시며, 회개와 보상으로 죄를 바로잡게(교리와 성약 1:27~28 참조) 하신다.

이런 원리를 가정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소개한다.

- 자녀의 장점을 파악하고, 또 그들이 약점을 극복하도록 도울 방법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
- 인내하고, 자녀가 회복력을 키우려면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 잘못과 실패는 배우기 위한 기회임을 이해하려고 힘쓴다.
- 자연스럽게 논리에 맞는 결과로부터

자녀는 회복력을 키우는 것이 노력과 상상, 지식, 기술을 통해 사는 동안 얻게 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다루기가 불가능한 일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배움을 얻게 한다.

- 자녀가 잘못된 선택으로 좋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호되게 꾸짖지 않는다.
- 너무 심하게 야단쳐서 노력하려는 자녀의 기를 꺾지 않는다.
- 성과를 칭찬하기보다는 용기를 주고 노력을 칭찬한다.
- “자녀들을 꾸중하기보다는 칭찬해 주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성취했으면, 그것을 칭찬해 주십시오.”(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 “여성의 고귀한 지위”, 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157쪽)

자녀를 회복력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쉽지 않은 이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어 자녀가 인생의 역경에 대처할 정서적, 영적 힘을 얻게 하는 데 필요한 인도와 영감을 주실 것이다. ■



역량 있고 회복력이 강한 자녀로 키우기 위한 제안

자녀 양육에는 각 자녀에게 맞는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어떤 원리는 거의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다. 다음은 효과가 검증된 원리들이다.



이렇게 하는 대신 ……

닥치는 대로, 독단적으로
규칙과 결과를 정한다.

자녀가 선택에 따른 결과를
회피하게 내버려둔다.

대부분 나무란다.

독단적인 태도로 일관적이지 않게
순종을 요구한다.

결과만 칭찬한다.

자긍심은 결과에 좌우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수나 성공은 행운이나 재능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녀가 겪는 어려움에 일일이 답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자녀를 비난하고, 그들이 한 노력과
성취한 것을 비난하여 자신이
우둔하다고 느끼게 한다.



이처럼 한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얻는다.

합리적이고 행동과 연관이 있으며, 부모와 자녀를 존중하는 규칙에 관해 토론하고 논리적인 결과를 설정한다.

자녀는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며, 선택에는 결과가 따름을 알게 된다.



자녀가 자신이 내린 선택에 따른 자연스럽게 논리에 맞는 결과를 경험하게 한다.

자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게 된다.

대부분 칭찬한다. 올바른 길로 가면 작은 발걸음도 축하해 준다.

자녀는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용기가 나고, 자신이 가치 있으며 인정을 받는다고 느낀다.

자녀의 어떤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바람직한 보상을 준다.

자녀는 어려운 일을 꼭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해야 하니까 한다는 것을 안다.

결과에 상관없이 노력을 칭찬한다.

자녀는 용기와 넘치는 자신감을 갖게 되며, 더욱 기꺼이 도전하려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기 때문에 타고난 가치가 크며 신성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자녀에게 말한다.

일시적인 성공 혹은 실패 대신에 자녀의 영원한 잠재력에 자긍심을 둔다.

실패는 일시적이며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규정한다. 성공은 근면과 희생의 산물이라고 규정한다.

자녀는 실패에 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끈기를 더 발휘하려 한다.

자녀를 도와 (1)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2) 그 결과에 어떤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며, (3) 다음엔 이 문제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파악하게 한다.

자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키우고,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며,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지지하며 격려해서 그들이 도움을 구하려 다시 여러분한테 오게끔 한다.

자녀는 자신의 잘못과 어려움을 여러분과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넌 이제 자유란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보여 주신 것과 같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고 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복음이란 “욕망을 제어하게 하고 행동 방향을 알려 주는 자유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 이 계획을 따를 때 우리는 지식과 능력을 키우고 은혜와 빛을 증가시키는 길로 인도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노력하면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자유를 누리려면, 여러분의 모든 죄(앨마서 22:18 참조), 아집, 좋아하지만 건전하지 않은 취미,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로막는 것까지도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주의 음성

제 이모님인 아데나 넬 골리는 지금은 고인이 된 부친, 곧 제 외조부이신 헬게 브이 스웬슨과 오래전에 있었던 경험담을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뜻하는 바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딸아이와 함께 아버지댁에 갔었지. 해질 무렵에 어머니가 뒤쪽 현관으로 나가 아버지가 다섯 마리 양을 우리로 불러 모으는 것을 보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더구나. 아버지는 스테이크 축복사이셨는데, …… 하나님의 사람이셨어. 선하고 온유하며 참된 모든 것을

구현하신 분이셨지.

…… 아버지는 목초지 가장자리로 가서서 ‘이리 온.’ 하고 부르셨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양 다섯 마리가 한입 가득 풀을 물고서 우물우물 씹으며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구나. 그리고는 아버지 곁으로 뛰어왔는데 아버지는 한 마리씩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

내 어린 딸이 ‘와! 할아버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고 여쭙었더니, 어머니는 ‘양들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알고 할아버지를 좋아한다.’ 하고 대답하셨어.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목초지의 양은 다섯 마리였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양도 다섯 마리였지만, 달려온 양은 네 마리뿐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저 멀리, 목초지 끝을 보니 커다란 암양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지 않겠니. 아버지가 ‘이리 온.’ 하고 부르는데 그 암양은 울 듯하면서도 오지 않는 거야. 그러자 아버지는 목초지를 가로질러 가시면서 ‘이리 온. 넌 묶이지 않았어.’ 하고 말씀해 주셨지. 나머지 네 마리 양은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니더구나.

그때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암양은 몇 주 전에 어떤 지인이 더는 못 키우겠다며 아버지께 갖다 주신 양이었다는구나. 그 주인은 그 양이 너무 사납고 제멋대로인데다가, 늘 다른



양들을 이끌고 울타리를 빠져나가버리기도 하는, 엄청난 골칫거리라서 없애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반갑게 그 양을 받아 주셨고, 며칠간 목초지에 묶어 두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셨지. 그리고는 인내하면서 그 양이 아버지와 다른 양들을 좋아하도록 가르치셨어. 양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편안하게 느끼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양의 목줄은 그대로 두셨지만 묶어 두지는 않으셨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이런 설명을 하시는 동안, 아버지와 다른 양들은 목초지 가장자리에 있던 그 뒤쳐진 양에게 다가갔고, 곧이어 조용한 가운데 아버지가 양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더구나. '이리 온. 넌 이제 묶여 있지 않잖니. 넌 이제 자유란다.'

그 양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는 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구나. 아버지는 사랑스럽게 양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고는 양들을 모두 데리고 우리에게 오셨단다.

나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양이고, 그중 일부는 세상에서 죄 때문에 속박되어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뒤쪽 현관에 선 채로 나는 인내심이 많고 친절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기꺼이 가르쳐 주시려 하고, 양 떼 사이에서 안전과 자유를 지켜 주는 진정한 목자와 교사가 계시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조용히 감사드렸단다. 그래서 우리는 피난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란다. '이리 온. 넌 이제 자유란다.'²

완벽하게 순종할 때 자유가 확장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고양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의 말씀을 빌자면, "우리는 눈이 멀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볼 수

완벽하게
순종함으로써
자유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고양됩니다.

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³

이생에서 하는 선택은 어떤 권능에 예속되느냐 마느냐 사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권세에 순종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인가, 아니면 사탄의 권세인가. 리하이의 말처럼 이것은 자유와 사로잡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니파이후서 2:27 참조) 어느 쪽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의에 순종하면 다른 축복이 따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평화롭게 살도록 해 주는 신앙과 확신입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여호수아 1:5, 7)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모세에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와 더불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시편 56:11)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오래전 저는 교회 선도 평의회를 감리한 적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선도 평의회에 서게 된

사람은 우리 앞에서 자신의 과거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는 참으로 심각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안을 심사숙고하는 동안 저는 영혼이 괴로워졌고, 다시 선도 평의회에 참석하기 전에 홀로 생각하고 기도해 보겠다고 잠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의자 앞에 서서 어떻게 그러한 악이 행해졌는지 알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뭔가로 덮여 있는 거대한 구덩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의 덮개 한 면이 잠시 살며시 들어 올려지면서, 저는 그 구덩이 속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깊이와 광대함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저는 압도당하여, 뒤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울부짖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러한 악을 극복할 희망을 품을 수 있나이까? 그토록 음침하고 엄청난 것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나이까?”

그 순간 이런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저는 그와 같은 평화와 악의 실재를 함께 느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구주의 격심한 고통과 그분께서 극복하셔야 했던 것의 깊이를 두려운 마음으로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판결을 받으려고 우리 앞에 섰던 그 형제에게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에게도 구속주가 계시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는 그 형제를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하며, 아울러 그가 겪었던 부당함을 치유해 주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선한 뜻이 승리할 것임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안 계시다면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감미로운 화평을 느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그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노라.”(교리와 성약 123:17)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팔과 권능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아이들아, 이는 너희가 나의 것임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며,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있음이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은 바 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50:41~42)

이런 확신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조만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선택했기에 무서운 재난의 시간이나 짜증 나는 혼란 속에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복음이 지닌 평화는 참 아름답도다” 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⁴

하나님의 지도자를 미지근하게, 마시못해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신앙, 평화, 또는 그와 같은 다른 은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진정한 의로움에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의 없이 건성으로 하는 충성은 아예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진심으로, 또 아낌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 주신 것과 같은 헌신입니다. 그분이 마시도록 요구받은 그 잔은 너무나 써서 위대한 창조주이신 주님마저 놀라게 했습니다.(마가복음 14:33; 교리와 성약 19:17~18 참조) 하지만 그분은 그 잔을 마셨고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었습니다.”(모사이야서 15:7)

저는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증으로 전합니다.(요한복음 17:20~23 참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이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밝혀 줄 길잡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

1999년 10월 19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Gordon B. Hinckley, “A Principle with Promise,” *Improvement Era*, June 1965, 521.
2. Adena Nell Swenson Gourley, “I Walked a Flowered Path”(unpublished manuscript, 1995), 199-200.
3. 보이드 케이 페커, “선택 의지와 통제”, *성도의 벗*, 1983년 7월호, 102쪽.
4. “복음이 지닌 평화”, *찬송가*, 7장.

자립의

원리대로 생활하기



래리 힐러, 교회 잡지
캐더린 에이치 올슨, 복지 서비스

볼 리비아 라파스에 사는 루이스 퀴스페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지만, 자립하여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또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 루이스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며, 또한 자신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립: 영적, 현세적인 원리

여섯 자녀를 둔 이 46세의 아버지는 지난 8년간 농학사 학위를 따기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해 왔다. 루이스는 자신이 사는 작은 마을 아차카치에서 산안드레스 대학교까지 97킬로미터를 오가야 했다. 이런 희생이 따랐지만, 루이스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제는 자기 농장을 갖겠다는 다음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

루이스는 일, 복지, 비축 등과 같이 현세적인 면에서 자립을 이룬 좋은 본보기이다. 하지만 자립의 원리는 현세적인 것 못지않게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자립을 “자신의 영적 및 현세적인 복지를 책임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돌보도록 맡기신 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의했다.¹

주님은 오직 현세적인 의미만 있는 율법은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교리와 성약 29:34~35 참조) 아마도 일하라는 계명은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게 하는 것 못지않게 영적으로도 축복을 주기 위해 주어졌을 것이다.(창세기 3:17~19 참조)

영적인 자립

현세적인 자립의 축복은 자연재해, 해고, 금융 대란 같은 위기의 시기에 특히 자명해진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영적인 자립은 똑같이 중요하다. 영적인 기반이 단단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할 때 화평, 확신, 더 큰 신앙으로 축복받는다.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에 대비하라고 권고한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 식량, 의복, 가능하면 연료까지도 가정에 비축하라는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

우리는 이와 동일한 원리가 영감과 계시, 문제 해결, 조언, 그리고 인도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우리가 영적, 정서적인 독립과 자립을 잃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할 때보다 더 약해지기 쉽습니다.”²

주고받는다

자립을 완전한 독립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한다.(모사이야서 2:21 참조) 우리에게는 그분의 지속적인 인도와 보전,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는 또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서로 다른 영적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교리와 성약 46:11~12 참조)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다면 자립을 이루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봉사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더욱 자립한다면, 선을 위한 대리인이 될 우리의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주와 같이 되는 것이며, 그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사심 없이 봉사하려 할 때 촉진됩니다.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자립의 정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³

개인의 책임

루이스 퀴스페는 인내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일, 대학교 학위, 더 강한 가족이라는 현세적인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세적인 축복은 그의 신앙을 강화시켰다. 그는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의 다음 권고를 따랐다. “참다운 후기성도라면, 신체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지와 가족의 복지에 대한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는 주님의 인도와 자신의 노력으로써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에서의 필요 사항을 자신과 가족에게 충족시킬 것입니다.”⁴ ■

주

1. 로버트 디 헤일즈, “복지에 대한 복음적 관점: 행하는 신앙, 복지와 자립의 기본 원리(2009년), 1~2쪽.
2. 보이드 케이 패커, “주님의 방법대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함, 성도의 빛, 1978년 142~143쪽.
3. 로버트 디 헤일즈, “복지에 대한 복음적 관점”, 2쪽.
4. 스펜서 더블유 김볼, “복지 사업: 실천의 복음,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117쪽.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더욱
자립한다면, 선을
위한 대리인이 될
우리의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마이클 존 유 테 장로
칠십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힘

경전을 매일, 꾸준히 연구하는 것보다 더 큰 영적 유익을 주는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오래전, 감독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저는 보좌들과 함께 모든 회원 가정을 일 년에 한 번씩은 방문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방문을 계속하던 중에 한 번은 폐선로를 따라 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철로 양쪽으로는 한 평이 조금 넘을 듯한 작은 판잣집들이 늘어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은 어느 가족의 거실이자 식당이며 침실이고 부엌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성인들은 일정한 생활 방식과 일과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허름한 탁자 주변에 모여 담배를 피우고 맥주를 나눠 마시며 보냈습니다. 여자들도 모여서 험담과 뜯소문을 섞어 가며 그날의 화젯거리로 잡담하는데 몰두했습니다. 도박은 노소를 불문하고 즐기는 오락이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들이 그런 식으로 일생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는 듯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들 대부분이 절망 때문에 그런 상태를 자신의 운명으로 믿게

되었으리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자로 일했던 저의 보좌가 그 지역에 산 적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제가 그곳에서 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기에 참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형제자매들은 모두 교육을 받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 보좌의 아버지는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 본 후, 저는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자신을 향상시켰을까?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나왔을까? 무엇이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시야를 열어 주었을까?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어디에서 희망을 찾았을까?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저는 필리핀 마닐라 성전에서 당시 필리핀에서 봉사하던 모든 선교부 회장 부부가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한 방에 들어섰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묵하고 겸손했던, 제 보좌의 부친이 흰옷을 입고 앞에 서 계셨습니다.





경전을 재발견함

“저는 우리 각자가 인생에서 언젠가는 스스로 경전을 발견해야 하며, 또 비단 한 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재발견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2006), 62쪽.

순간 제 눈앞에 두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으로는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며 인생을 낭비하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다른 쪽에는 똑같은 사람이 흰옷을 입고 거룩한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두 번째 장면의 극명한 대비는 제 마음과 정신에 영원토록 각인될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

이 선한 형제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향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힘에 있습니다.

저는 경전을 매일, 꾸준히 연구하는 것보다 더 큰 영적 유익을 주는 활동은 거의 없다고 믿습니다. “강화하고 격려하며 가르치기 위하여”¹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다른 이들에게 주신 계시인 교리와 성약 26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경전을 연구하는 일[에] …… 너희의 시간을 바칠지니라.”(1절)

물론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전파가 …… 칼이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더라”(앨마서 31:5)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참된 교리를 이해하면 태도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복음 교리에 대한 연구가 행동을 개선하는 것은 행동에 대한 연구가 행동을 개선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²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역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민가에서 사람들을 빼내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빈민가를 없애셔서 그들이 스스로 빈민가를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켜 인간의 틀을 잡으려 하나 그리스도는 인간을 변화시켜 인간이 그들의 환경을 바꾸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품행을 형성시키지만,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³

필리핀에서 자라면서, 저는 1900년대 초까지도 성경은 오직 종교 지도자들만 접할 수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성스러운 기록을 접하거나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전례 없이 경전을 쉽게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에도 지금 우리만큼 이 신성한 기록을 향유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서점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즉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경전을 즉시 찾아볼 수 있고, 각종 기기에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사를 작성하며,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이보다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혜로운 목적을 위해 이 새로운 기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적은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우리를 “자기처럼 비참하게”(니파이후서 2:27) 만들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허락하신 이 발전된 기술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며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의 신성함

우리 후기 성도들은 경전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지만, 경전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는 때로 그렇지 못합니다. 리하이의 꿈에는 경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적절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나는 무수한 사람의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내 곁에서 있는 나무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려고 앞으로 밀고 나아오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앞으로 나아와, 나무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서 나아가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어둠의 안개가 일어나매, 참으로 심히 큰 어둠의 안개라. 그로 인해 그 길에 들어섰던 자들이 길을 잃더니, 방황하며, 멀어지다가, 잃어버린 바 되더라.”(니파이전서 8:21~23)

쇠막대를 잡지 않은 채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그런 생각은 분명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니파이는 쇠막대를 굳게 잡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31:20, 강조체 추가)

나무에 도달하려 노력하는 도중에 쇠막대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나이다.”(니파이전서 15:24)

엘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제 엘마가 이러한 일을 그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많은 자에게 허락되어 있느니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다만 사람의 자녀들이 그에게 기울이는 주의와 부지런함에 따라, 그들에게 내려 주시는 그의 말씀의 분량을 따라서만 나누어야 한다는 엄격한 명령하에 놓여 있느니라.

또 이러므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자, 그는 더 적은 분량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할 자, 그에게는 더 큰 분량의 말씀이 주어져, 이윽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기에 이르고 이윽고 이를 전부 알기까지 이르느니라.

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자들, 그들에게는 더 적은 분량의 말씀이 주어져, 그들이 그의 비밀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까지 이르게 되리니, 그때 그들이 악마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에 의해 멸망으로 인도되리라.”(엘마서 12:9~11)

규칙적인 경전 연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방식에 계속 얽매어 있음으로써 말씀의 더 적은 분량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비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반면 경전을 매일 취하면, 영적인 힘과 지식을 키우고 악의 속임수를 찾아내며 우리를 잡으려고 놓은 덫을 발견할 힘이 생깁니다.

다음과 같이 자문해 봄으로써 성신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실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 매일 시간을 내서 경전을 연구하는가?
-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주님께서 나의 변명을 받아들여 주실까?

매일 경전을 읽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경전을 읽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경전을 읽을 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더 큰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

2011년 3월 22일,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에서 열린 영적 모임 말씀에서 발췌. 영어로 전문을 보려면, devotional.byuh.edu/archive에 접속한다.

주

1. 교리와 성약 24장 머리글.
2. 보이드 케이 패커, “두려워 말라”,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9쪽.
3. 에즈라 테프트 벤슨, “하나님께서 태어남”, *성도의 빛*, 1989년 10월호.

십일조의 축복

주님은 우리에게 십일조를 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분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그분의 방식에 따라 그분이 계획하신 시간에 오며, 그것은 영적인 것일 수도, 세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십일조를 내는 것은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의 반대가 있을 때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소개하는 후기 성도들처럼, 교회 회원들은 십일조를 낼 때 주님의 손길을 생활 속에서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십일조를 내면 큰 축복이 따르는데, 특히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십일조는 신앙을 발전시킨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나는 볼리비아 동부 먼
곳에 위치한 도시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교회 회원은 우리
들 뿐이었다. 남편은 새로운 개종자였고, 우리는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싶었다.

우리는 감독님에게 십일조를 전해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매달
봉투에 십일조를 모아 두었다. 남편은 우리가 이 법을 따른다면
축복과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세들 집을 찾는 동안 우리는 덥고 비싸고 불편한 호텔에서
지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다. 우리가
찾아낸 집은 아담하고 예뻐는데, 집주인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집을 빌리려는 많은 외지인들은 주인을 만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기도를 드린 직후, 한
젊은이가 우리를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그 젊은이는 그 집의
주인이 잠시 돌아와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내가 그 집을
얻을 수 있게 도와 주시도록 기도하는 동안, 남편은 집주인을
만나기 위해 급히 밖으로 나갔다. 남편은 돌아와서 주인이
믿을 수 없이 싼 가격에 집을 내주었다고 말했다. 더욱 기뻐던
것은 그 집에는 모든 가구가 비치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당시에
우리 소유물은 짐이 가득 찬 큰 상자 두 개와 여행용 가방이
전부였다.

십일조의 법은 돈보다는 신앙에 관한 율법이다. 남편의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충실하게 십일조를 냈고,
주님은 우리가 좋은 집을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로우데스 솔리스 데 두란, 볼리비아

십일조는 평안을 가져온다

나는 언제나 주님과 그분의 계명을 신뢰해 왔다. 그렇지만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나는 초과 근무를 할 수 없었고, 봉급이
줄었다. 나는 십일조를 내지 않기로 했고,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빛은 늘고 봉급은 줄어만 갔다.

내가 처한 고난을 보고서 몇몇 친척이 십일조를 무엇보다도
먼저 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이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십일조 대신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돈을 썼다. 재정 상태가 안정적일 때에는 기꺼이
십일조를 내려 했지만, 상황이 불안정해지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마태복음 14:28~31 참조)



어느 날 오후, 봉급을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깊어야 할 모든 빛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바로 눈을 떴을
때, 버스 천장에 매달린 포스터가 시야에 들어왔다. 폭풍이
이는 바다에 빠진 베드로와 그를 구하려 손을 내미신 구주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포스터 아래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나는 빛을 청산하고 싶다면, 먼저

부모에게

“동전 한 닢”(리아호나, 2011년 8월호, 70~71쪽)에서 대니얼은 비록 동전 한 닢이지만 십일조를 내는 일이 훌륭한 선택임을 배웁니다. 함께 실린 활동은 십일조를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가족이 함께 이 기사를 읽는 것은 십일조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가 십일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활동에 나오는 그림으로 그들의 십일조 병이나 상자를 꾸미게 합니다.

리아호나 이전 호는 liahona.lds.or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십일조를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십일조 봉투를 찾아 십일조 금액을 그 안에 넣었다. 봉투를 봉하자 “모든 것 잘 되리”라는 말이 들렸고, 기쁨이 느껴졌다. 그 기쁨으로 내 영혼은 평화를 느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적절하다고 여기시는 시각에 내 삶을 축복하실 것임을 안다. 그때까지 바다가 계속 요동칠 수도 있다. 하지만 순종에서 오는 평안은 넘치도록 풍족하다.

리카르도 레예스 비얄타, 엘살바도르

십일조는 개종으로 이끈다

딸이 교회에 가입하자 우리 가족에게는 십일조를 내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남편과 나는 회원이 아니었다. 딸은 돈을 벌고 있었지만, 우리와 함께 살았기에 모든 수입을 공유하고 있었다. 딸은 십일조를 내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10퍼센트가 제외된 딸의 수입으로 생활할 것이 막막했지만, 조금씩 딸의 결정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딸이 집으로 봉급을 가져올 때마다 나는 “십일조는 따로 챙겨 두었니?”라고 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복음을 배우는 것에 관심이 생겼지만, 십일조를 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한 가정에서 두 명이나 십일조를 내는 것은 큰 부담으로 느껴졌다!

나는 일 년이 넘도록 교회에 참석하면서, 뭔가 불편하고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이 느껴졌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난 후, 나는 내가 십일조를 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부터 반대를 해 왔던 나에게 그런 소망이 생긴 것이 놀라울 뿐이었다.

다음 일요일에 나는 지부 회장님에게 십일조 용지를 부탁했다. 나는 회원이 되기 전에는 십일조를 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실망했다. 하지만 헌금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수입의 십분의 일을 주님의 교회에 헌금했다. 그렇게 하자 곧바로 평안과 기쁨과 만족감이 찾아왔다. 나는 십일조를 내기 위해 침례 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나는 우리 가족이 누리는 세상적인 축복도 십일조를 내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안다.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을 때 얻는, 형언할 수 없는 그 느낌이다. 순종했다는 만족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평안과 행복을 느낀다. **올가 니콜라예브나 크립코, 우크라이나**

십일조는 가족을 축복한다.

나는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십대 시절에는 교회와 멀어졌다. 교회로 돌아왔을 때, 남편 데일은 나를 지지해 주었지만 자신이 선교사들을 만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하게 된 후, 나는 성전 추천서 접견을 위해 감독님을 만났다. 감독님은 나에게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는지 물었고, 나는 기쁘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독님은 “남편께서 자매님이 십일조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라고 물으셨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되지? 감독님은 부드러운 어조로 남편에게 십일조를 내고 있다고 말한 후에 다시 오라고 하셨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십일조를 내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데일이 그제 “나도 알아.” 하고 대답해서 당황스러웠다. 그것은 십일조가 가져온 수많은 기적의 시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일은 가족 재정 관리를 나에게 넘겼다. 내가 우리 수입에 대한 완전한 십일조를 내려 한다고 설명하자, 남편은 십일조의 축복을 직접 목격했기에 승낙했다.

지금 우리 찬장은 언제나 채워져 있고, 우리는 매일 가족 기도를 드리며,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선교사들을 초대한다. 남편은 가정의 밤에도 참여한다. 나는 언젠가 데일이 교회에 오리라고 믿는다. 또 그의 개종은 우리가 함께 완전한 십일조를 내겠다고 결정했던 때에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샌디 그레이엄, 미국 뉴욕

십일조는 하늘 문을 열어 준다

몇 년 전에 남편은 직장을 잃었다. 내가 받는 적은 연금만으로 청구서를 지불하고 음식을 사는 것은 힘들었지만, 근근이 살아갈 수는 있었다.

남편은 내가 교회에 열심히 것을 지지했지만, 청구서 지불도 힘든 형편에 십일조를 내는 것은 불만스러워했다. 그러나 나는 이 계명에 계속 순종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비록 돈은 얼마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봄이 왔을 때 우리는 당근과 감자, 콩, 토마토, 붉은 피망과 허브 종류를 심었다. 텃밭은 여름을 지나며 무성해졌고, 먹을 것을 풍족히 내어 주었다. 자두나무는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서 가지가 부러질 지경이었다. 나는 과일과 채소로 병조림을 하고,



질의응답

십일조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우리의 수입 중 십분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자원해서 바치는 십일조의 원리는 구약시대 때부터 가르쳐졌습니다.(창세기 14:17~21 참조)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시는 방편입니다. 오늘날 십일조는 (1) 성전, 예배당, 기타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2) 교회의 운영 자금으로 쓰이며 (3) 선교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여기에 개인 선교사 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교회 공과반과 보조 조직에서 사용할 자료를 마련하며 (5)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과 같은 다른 중요한 사업을 실행하는 데 쓰입니다.

얼리고, 잦을 만들고, 파이를 굽고, 남는 것을 이웃과 나누며 바쁜 여름을 보냈다.

어느 날, 우리의 작은 텃밭을 둘러보다 나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겠다]”(말라기 3:10)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다.

밭에서 얻은 수확물로 가득 찬 냉장고를 떠올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실로 축복하셨음을 깨달았다. 우리의 자그마한 텃밭은 어려운 시절을 견디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을 내어 주었다.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

재클린 커비슨, 영국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부활절 전통 만들기

부활절에 우리는 구주께서 주신 선물인 속죄를
기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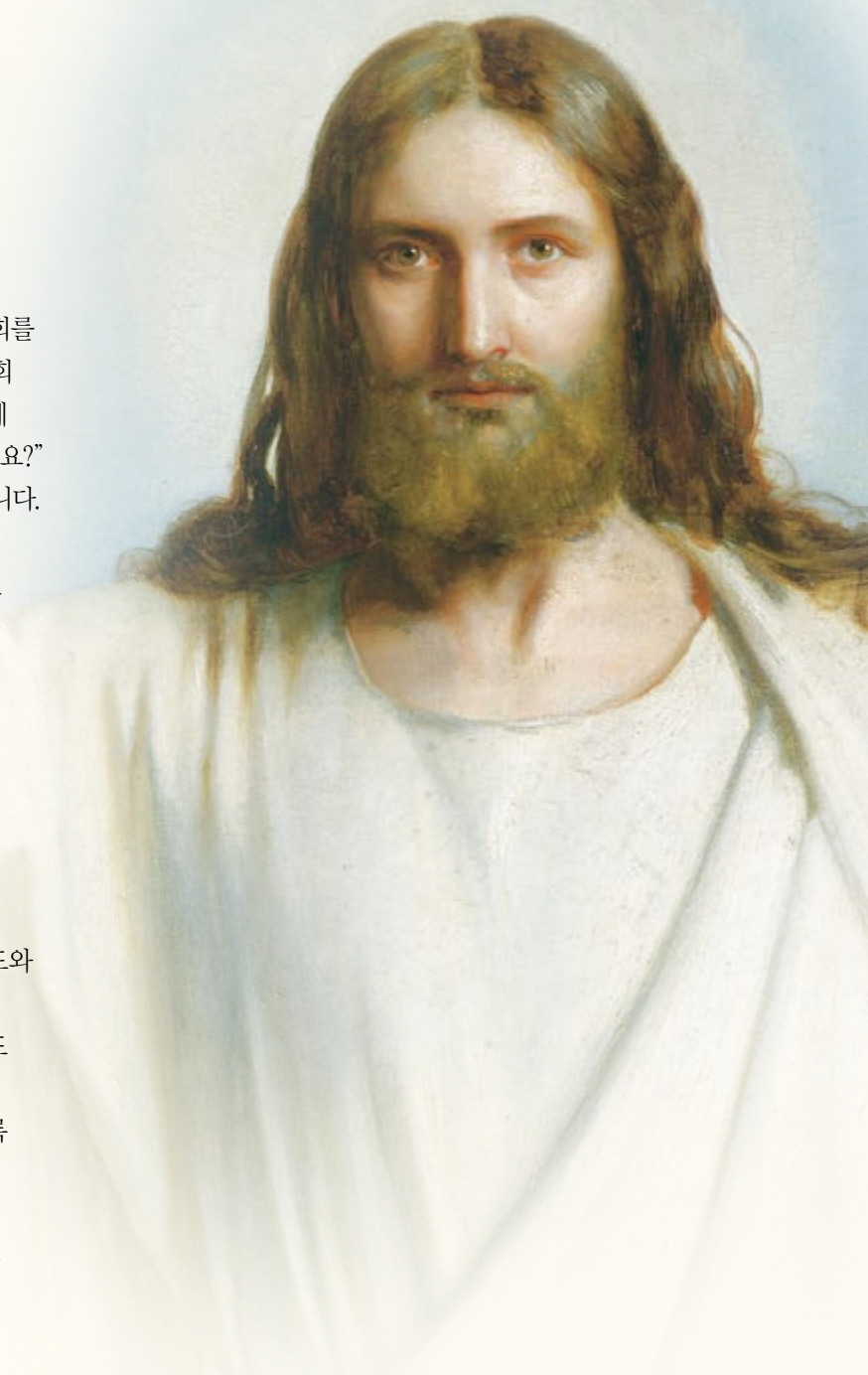
다이앤 엘 맹검

몇 년 전 부활절 안식일에 네 살 난 아들 벤이 초등학교를
마친 후 자기가 색칠한 종이를 흔들며 교회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벤은 정말 신이 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부활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들은 제가 그 좋은 소식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어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벤의 마음을 진정으로
감동시켜서 아이가 부활에 대해 기쁘게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해마다 부활절에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가요!

부활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부활절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전통을 만들면 우리는
구주의 그 선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와 전통

부활절에 우리 후기 성도들은 별도의 잔치나 행진이나
축제 없이 매주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와드와
지부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
순서와 찬송을 계획합니다. 부활절 안식일에 대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오늘날 우리가 그분께 받는 축복을 기억하도록
만찬과 축제의 형식과 같은 종교적 전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할 훌륭한
유산을 가까이하게 해 주는 전통을 갖고 지키는 것은 모든



가족이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가족의 전통”, 성도의 벗, 1990년 7월호, 20쪽)

다음은 부활절을 기념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더 가까워지려는 가족들의 전통을 보여 주는 다양한 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 제니스 닐슨과 커크 닐슨은 지금은 부활절 전통으로 자리잡은 특별 “조부모와의 밤”을 시작했습니다. 닐슨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조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은 자녀들의 집에 가서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앉아서 우리가 구주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라고 믿어요.”
- 헥터와 세릴린 알바는 자녀들이 어릴 때, 부활절을 앞둔 주에는 저녁마다 구주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간단한 공과를 했습니다.
- 사랑하는 이들의 묘소를 찾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과 돌아가신 가족들 이야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계란은 구주께서 부활을 통해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음을 보여 주는, 보편적인 부활절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란을 색칠해서 숨기고 부활절 계란 찾기 놀이를 하고 부활절 바구니를 선물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전통입니다.

- 러시아 사람들은 부활절에 서로 인사하며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죠.”라고 대답합니다. 알바니아에도 비슷한 전통이 있는데, 함께 붉은 계란을 부딪혀 깨뜨리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라고 말합니다.
- 카렌 스펜서는 덴마크 출신인 할머니께서 부활절을 기념하던 일들을 소중히 기억하며, 아직도 할머니가 하셨던 대로 보라색 양파 껍질을 끓여 계란에 물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카렌의 가족은 그 시간 동안 계란이 새 생명과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은 메시지와 함께 숨겨진 부활절 계란 찾기를 즐기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계란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작은 물건들과 읽어 볼 경전 구절을 넣어 둡니다. 그런 후 부활절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 계란에 번호를 적습니다. 자녀들은 계란을 순서대로 열어 보면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부활절 음악을 들으며

부활절에 음악은 우리에게 훌륭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데이비드와 조이스 비어는 구주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부활절 음악회를 즐겨 찾습니다.
- 데이브와 낸시 하몬은 조지 프리데릭 헨델의 메시아를 즐겨 듣습니다. 하몬 자매는 이 작품이 “성탄절보다 부활절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 한 어머니는 피아노를 배우는 자녀들에게 그 달에는 부활절 노래를 연습하라고 격려했습니다.
- 데일과 사라 오컬런드 가족은 피아노 주변에 모여 부활절에 관한 찬송가와 초등학교 노래를 부릅니다.

함께 부활절 식사를 하고

가족 식사는 세계 어디에서나 의미 있는 부활절 전통 중 하나입니다.

- 어떤 가족은 햄을 먹으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이루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가족은 그리스도께서 드셨던 음식을 기억하려고 생선을 먹습니다. 엘리자와 마이클 퍼레이라 가족은 양고기를 곁들여 식사를 하고, 유월절 이야기 속의 상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우리 가족은 부활절 만찬을 들고난 후,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모든 가족과 다른 사랑하는 친구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의 부활절 앨범은 이제 30년 이상이 된, 가족의 행복한 추억을 담은 연대기가 되었습니다.
- 장성한 자녀를 둔 어느 부부는 특별한 저녁 식사에 다른 성인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들은 함께 추억을 나누고 부활절의 의미를 돌아봅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금요일과 월요일이 부활절 휴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히티에서는 종종 가족이 함께 다른 섬으로 소풍을 갑니다. 중앙 아메리카의 일부

후기 성도들은 여가 시간에 가족을 방문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성전에 갑니다.

평일에 비종교적 전통을 나누며

후기 성도 가족들은 종종 평일에 부활절과 관련된 비종교적 활동을 합니다.

- 브라질에서는 부활절 전 금요일이나 일요일, 어느 후기 성도 할머니가 먹다 남은 당근 한두 개를 보이는 장소에 놓고 그 근처에 부활절 계란을 숨깁니다.
- 부활절 다음 월요일에 조이스와 스코트 헨드릭스 가족은 야외에서 요리를 하고 특별한 부활절 계란 찾기 활동을 즐깁니다.

부활절에 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가정의 밤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거나 부활절 음악을 듣거나 특별한 식사를 즐기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축하를 대규모로 모여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부활절을 기념하는 개인적인 전통 또한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복도를 걸어오며 부활에 대한 좋은 소식을 나누려 했던 어린 벤처럼, 우리도 부활절이 주는 기쁨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

다이앤 엘 멩검은 미국 유타 주에 살고 있다.





가족의 중요성

오 늘날 세상에서는 가정이 공격 당하고 있다. 그렇기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간증을 얻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14쪽) 이번 호 52쪽에는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앤 엠 딕 자매가 추천하는, 가족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청소년을 도울 방법이 실려 있다.

예를 들어 그녀는 “[가족] 선언문을 읽으며 교리, 조언, 경고, 약속된 축복,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적어 보십시오.”라고 말한다.

청소년을 위한 가르침 제언

-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가족편을 읽는다. 이러한 지침들이 자신의 가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해 본다.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을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본다.
- 가족의 중요성을 주제로 가정의 밤을 여는 것을 생각해 본다.(엠 러셀 벨라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97~100쪽은 훌륭한 참고 자료이다.)
- youth.lds.org에 접속한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선택한 후 “가족”을 선택하여 가족에 관한 교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아본다. 참조 성구, 비디오(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 참조), 물론 채널 라디오 프로그램, 질의응답, 총관리 역원의 말씀 등의 기사를 볼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가르침 제언

다음에 소개하는 예는 여러분의 가족이 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 작고 투명한 유리병을 마련한다. 자녀와 함께 여러분의 가족을 강화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본다.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에 가정의 밤을 하거나 매일 가족 경전 읽기를 한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자녀들에게 유리병에 붙여 놓을 표시를 만들도록 부탁한다. 그 위에 목표를 적게 한다. 가족이 활동을 완수할 때마다 유리병에 구슬이나 유리알 같은 작은 물건을 넣는다. 유리병을 다 채우면, 특별한 가족 식사나 활동으로 축하할 수 있다.
- 각 자녀에게 가족 기도, 또는 경전 공부와 같이 여러분이 매일 하도록 격려하고 싶은 일을 하는 가족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나오는 조언을 따르면, 우리의 가정을 강화하고 보호할 수 있다.

보라고 한다. 그 그림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둔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림이 잘 보이게 세워 놓는다. 가족이 그림에 나온 활동을 완수하면 그 그림을 뒤집어 놓는다. 뒤집지 않은 그림은 가족들이 목표를 기억하고, 그날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상기하게 해 줄 것이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그림들이 잘 보이게 세워 놓는다.

이러한 활동은 가족이 받는 축복을 자녀들이 인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가정에 영이 함께할 때 오는 좋은 느낌을 자녀들이 인식하도록 도우면, 가정을 강화하는 옳은 행동 양식을 따르고자 하는 아이들의 소망도 자라날 것이다. ■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몇 년 전에 나는 자동차의 안전성과 배기량 허용 기준 검사를 받아야 했다. 어느 날 오후, 검사장을 가보니 여덟 아홉 대 정도의 차가 줄을 서 있었다.

화창한 봄날이었기에 나는 창문을 내리고 시동을 끈 다음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꺼내 들었다. 나는 늘 다른 교회 자료와 함께 가족 선언문을 차에 두고 있었다. 스테이크 회장님이 얼마 전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선언문을 암기하라고 권고하신 터였다. 이런 자투리 시간은 선언문을 외울 좋은 기회였다. 마침내 내 자동차를 검사할 차례가 되었다.

차량을 검사하던 남자들 중 한 명이 내 차를 차고로 운전해 가겠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끝날 때까지

옆방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다른 손님들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 보는 동안 시간이 흘렀다. 얼마 후 내 차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정비사가 차고에서 대기실로 오더니 검사에 합격했다고 알려 주었다.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 계산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정비사가 내 차를 주차해 둔 곳으로 걸어가니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가 말했다. “아가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가 말했다.

“차를 검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요. 차고로 차를 몰고 가면서 보니 조수석에 가족에 관해 적힌 종이가 한 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후에 바로

아가씨에게 차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차고에 앉은 채 그 종이를 몇 번이나 읽어 보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가족에 관한 이 문서는 무엇인가요? 제가 한 장 가질 수 있을까요? 거기엔 이 문서를 사도들이 썼다고 나오는데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에 사도가 있다는 뜻인가요? 꼭 알고 싶어요. 알려 주세요.”

나는 거의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이내 생각을 정리했다. 나는 그에게 정말로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도들과 선지자가 계시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복음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다. 그런 후 차에 있던 교회 자료를 모두 주었다. 그는 선교사들이 연락할 수 있도록 자기 이름과 전화 번호를 알려 주었다. 대화가 끝나자 그는 진심으로 나에게 감사를 표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조수석에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놓아 두었던 것에 감사드렸다.

그 정비사의 눈에서 보았던 열망이 잊히지 않는다. 이 경험으로 나는 가족 선언문의 힘을, 현대의 계시가 실재함을, 그리고 매일,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나누는 일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못할 방법으로 배우게 되었다. ■

안젤라 팔렌타인, 뉴질랜드

“**조** 수석에 가족에 대해 적힌 종이가 한 장 보이더라고요.” 정비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차고에 앉은 채 그 종이를 몇 번이고 읽어 보았어요.”



십일조가 먼저였다

2006년 여름, 남편은 트럭을 모는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다. 남편이 한 번에 두 주 정도씩 집을 비웠기에 청구서를 납부하는 것은 주로 나의 책임이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매달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예산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 해 7월, 남편의 봉급은 평소보다,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었다. 남편이 준 수표를 입금한 후에 은행 잔고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총액을 비교해 보았다. 십일조를 포함해서 모든 돈을 내려면, 30달러 정도가 부족했다. 몇 해 전에 십일조 내는 것을

미뤘을 때 힘든 방식으로 교환을 얻은 이후 우리는 완전한 십일조를 내 왔다. 십일조를 건너뛰는 것은 이번에도 선택 사항이 될 수 없었다.

나는 예산이 여의치 않았어도 십일조 수표를 먼저 적었을 때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돈이 생겼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했다. 보통 나는 그날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수표를 먼저 썼었기에 십일조 수표를 가장 먼저 적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주님께서 우리가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알았기에 제일 먼저 수표에 십일조를 적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월요일, 나는 큰아들을 위해 등록했던 강좌가 취소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한 달 전에 작성했던 20달러짜리 수표를 돌려받았다. 그 20달러를 포함해서 다시 수표책을 맞추어 보다가 나는 그 전 주에 계산을 할 때 23달러를 잘못 계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이를 뒤에는 소아과에서 청구과다에 대한 반환으로 36달러짜리 수표를 보내 왔다. 그러자 30달러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50달러가 남는 상황이 되었다.

주님은 말라기 3장 8~12절에서 우리가 십일조를 낼 때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 나는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가 십일조를 먼저 내라는 주님의 계명에 우리가 응했기 때문임을 안다. ■

캐리 델비 콕스, 미국 앨라배마

모든 비용을 지불하려면 30달러 정도가 부족했다. 하지만 십일조를 건너뛰는 것은 이번에도 선택 사항이 될 수 없었다.



케이프타운에 머물라

영국 런던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이후로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 직장을 잡고 살고 싶었다. 석사 학위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그때가 런던으로 이사하기에 적절한 때라고 결정했다. 나는 직장도 얻었고 이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어느날 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리고 런던으로 이사하는 것이 옳은지 알기 위해 기도를 드렸다. 잠들기를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에 계속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너는 케이프타운에 머물러야 한다.” 이 생각이 몇 시간 동안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케이프타운에 머물기를 바라신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었음에도 그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서 곧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지난 밤에 일어난 일을 이성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며 그냥 런던으로 갈까 하고 고심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전날 밤과 같은 경험이 반복되었다. “케이프타운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울렸다. 이 생각에 대해 숙고한 끝에 나는 주님께서 내가 케이프타운에 머물기를 진실로 바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나는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대로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다음 주에 스테이크 회장님이 내게 전화를 걸어 만날 수 있는지 물어오셨다. 나는 주님께서 주시려는 부름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내가 케이프타운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임을 영이 증거해 주었다.

나는 스테이크 청년 회장이란 부름을 받아들였고, 그 후 몇 년 동안 봉사하면서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었다. 그 결과, 내 삶과 내가 봉사했던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깃들었다. 나의 지도력이 발전했고, 남을 섬기는 동안 주님께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이후로 나는 주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라고 인도해 주었던 영의 조용한 속삭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의심을 줄이고 내가 받은 영감을 기꺼이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생활에 대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큰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

니키 베고인 스미스, 미국 유타



왜 아직도 십일조를 내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남편이 실직했다. 고용주들은 미안했는지 남편에게 다른 일자리를 제안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힘겨운 이사를 해야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안정된 직장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사를 한 후, 우리는 약속된 그 일자리가 이미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와 버렸고, 일거리도 없었으며, 저축해 놓은 돈은 이사 전에 빚을 갚고 이사하는 데 다 써 버려서 남은 게 거의 없었다.

남편은 정규직 자리를 구하려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면서 남편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고, 나는 수예품을 만들어 팔았다. 주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나면 겨우 생활을 이어갈 정도만 벌 수 있었다. 모든 면에서 검소하게 살았지만 학비를 내고, 음식과 옷을 사고, 남편이 나가 일자리를 찾는 데 드는 경비로 쓸 돈은 언제나 빠듯했다.

많이 울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받은 축복인, 건강하고 충실한 딸과 우리 부부가 한 마음이 된 것, 도움을 아끼지 않는 친척과 워드 회원들에 대해 감사드렸다.

교회 회원이 아닌 많은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다면서 왜 아직도 십일조를 내느냐?”며 나무랐다.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이사를 하고 나서야 그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와 버렸고, 일거리도 없었으며, 남은 돈도 거의 없었다.

때문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말라기 3:8~9 참조)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바라는 대리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았다.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둘 핑계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주님을 섬기려는 우리의 소망은 커졌다.

현재 남편은 직장을 잡았으며, 그 덕에 우리는 실직한 동안 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살림이 퍼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인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실]”(말라기 3:10) 것임을 안다. ■

라쿠엘 페드라자 데 브로시오, 아르헨티나

결혼하기에 적절한 때

앤과 벤저민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둘 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했다. 결혼을 원하는 두 사람의 바람을 대학 진학 계획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앨리사 스트롱

앤은 고등학교를 다니며 대학에 다니게 될 날을 꿈꿨다. 공부하고 싶은 분야도, 하고 싶은 일도 아주 많았다. 앤은 “제 관심사는 아주 다양했고, 다른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앤은 작은 마을에 살았지만, 아주 좋은 고등학교에 다녔다.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점수를 받고, 대학에 들어가도록 장려했다. 앤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했다. 앤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웠다. 그렇지만 대학 진학은 앤이 세운 여러 목표 중 한 가지였을 뿐이다.

앤은 이렇게 말한다. “청녀 시절에 공과와 개인 발전 기록부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제 목표는 언제나 성전에서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적절한 때”란 언제일까?

어느 날 밤, 앤은 종교 교육원에서 최근에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벤저민을 만났다. 앤은 벤저민을 “처음 본 순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대화하는 것이 편하고 좋았죠. 복음에 대한 생각을 서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생각을 서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어요.” 그 후 여러 달 동안 벤저민과 앤은 더 많이 만나 보았다. 그들은 축구와 배구도 하고, 하이킹도 즐기고, 영화도 봤다. 점차 서로 더 잘 알게 되면서 그들의 우정은 사랑으로 자라났다.

교제가 계속되자 결혼도 꿈꾸게 되었다. 앤과 벤저민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찾게 되어 행복했다. 그런데 둘의 관계는 서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지해져 갔다. 어릴 때 세웠던 모든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전히 교육을 추구할 수 있을까? 결혼을 결정한다면 다른 목표들을 뒤로 미뤄야 하는 것일까?

일부 친구들과 가족들은 둘이 결혼한다면 그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앤은 “집이나 학교, 직장에서 제

주변의 많은 사람이 이 관계가 제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크게 염려했어요.”라고 말한다. “심지어 이 관계가 계속될지 누가 아느냐는 말도 들었죠. 제 또래 친구들은 결혼하면 대학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친구들에게는 제가 재능과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벤저민의 지인들이 느낀 것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어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앤이 교육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했죠. 결혼하면 아이가 생길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어리다고 하면서요.”

앤과 벤저민은 복음이 강조하는 가족과 결혼에 대한 신념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그러한 우선순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앤은 이렇게 설명한다. “마을 사람들은 교육과 일을 아주 중시해요. 그건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가족이나 종교가 설 곳은 거의 없게 되죠.”





벤저민과 앤,
딸 올레아

벤저민은 이렇게 말한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할 결심을 한 후 성신의 증거를 받아 결혼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늘 생각해 왔어요. 아주 간단한 일처럼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혼란스럽고 어둡고 어렵게 느껴졌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벤저민과 앤은 친구들의 조언과 의견을 듣고서 걱정이 되었다. 결혼하기에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결정하는 일로 일 년 내내 힘겨워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인도는 주님으로부터 올 것임을 알았기에, 앤과 벤저민은 많은 시간을 들여 가족과 결혼, 교육에 관련된 경전 구절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찾아보았다.

앤은 “그런 자료들은 하나 같이 결혼과 교육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어요.”라고 말한다. 계속 방향을 찾기 위해 간구하던 어느 날, 종교 교육원 지도자와 나눈 대화 속에서 명확한 깨달음이 왔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장소(성전)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때가 바로 적절한 때인 거지!’” 앤은 그때를 이렇게 기억한다. “그 말로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영의 속삭임을 수없이 들었어요. 저는 벤저민과 결혼할 것이고, 지금 이때에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앤은 자신이 여전히 교육을 추구하게 될 것을 알았다. 그것은 주님의 선지자들이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결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앤은 알았다.

앤은 그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에 마음이 슬펐다. 그러나 앤은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며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제 선택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해야 했죠.”

벤저민에게는 그때 결혼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느낄 만한 특별한 전기는 없었다. 그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지상에 내가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경전을 살펴보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벤저민은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갔다. 그는 또한 신권 축복을 받았다. 벤저민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지상에 온 것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 어떠한 위대한 업적이나 성취도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죠.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만일 제가 이것을 알고도 무시하고 다른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예요.”

살면서 지금껏 배워 온 것이 너무나 참되어 다른 어떤 세상적인 말이나

의견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자 제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앤과 벤저민은 2009년 7월 16일에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에서 결혼했다. 앤은 이렇게 말한다. “성전 인봉일이 다가왔을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하고도 아름다웠죠. 세상의 어떠한 굴레도 없었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벤저민과 함께 서는 것이 참 좋았어요.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그에 이어진 축복

결혼까지 몇 달간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앤은 그러한 시련을 겪은 것에 감사드린다. 앤은 이렇게 말한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어느 곳에 설지 분명히 해야 했죠. 하나님께서는 경전과 기도, 신권 축복을 통해 저를 도와주시고 강하게 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많은 사람들도 제가 옳고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인정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참 행복을 찾은 것을 보았죠. 그리고 제가 저 자신과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에 감사를 표했어요.”

결혼 후 앤과 벤저민은 함께 대학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인 얼 시 텅기 장로는 영적 모임에서 청년 독신 성인들이 결혼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염려 사항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

“1. 일부에서는 귀환 선교사들에게 결혼하라는 충분한 격려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귀환 선교사들은 귀환 후에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교육을 받으며 직업 기술을 습득하고 영원한 동반자를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2. 어떤 젊은이들은 자신이 일부 여성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적절한 대화를 통해 모호한 점들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3. 교육이나 직업에 대한 강조로 인해 결혼이 덜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 교육, 그리고 직업은 함께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이룰 수 있는 데도 가족 없이 직업만 추구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4.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재미있거나 이기적인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삶은 놀이 공원 이상의 것입니다. 부의 축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받아들이십시오.”

“5. 결혼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게 되면 결혼을 단념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 결혼을 왜 하지?’ 다른 사람이 이혼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여러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마십시오.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6.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멋진 생활을 유지할 만큼 돈이 충분해질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움을 겪고, 적응하고,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것 등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청년 성인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 *리아호나*, 2007년 4월호, 29~30쪽.

공부를 시작할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다. 곧 그들 사이에 딸 올레아가 태어났고 앤은 잠시 학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집에 머물면서도 온라인과 시간제 수업을 들으며 교육을 계속 받을 것이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힘든 일인 줄 알지만, 앤은 여전히 자신이 바라는 대로 교육을 추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결혼해서 가족을 꾸리느라 많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저는 모든 것을 얻었어요. 주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둔다면 다른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대학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제게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벤저민도 앤과 같은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주셨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우선시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제게 그것은 가족과 교육 사이에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가족과 교육을 동시에 선택하는 문제였죠. 다른 결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



복음에 관한 대화 도중에 상대가 논리를 따지며 토론을 이기려고만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간증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복 음에 관한 대화 도중에 상대가 논리를 따지며 토론을 이기려고만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은 간증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논리와 이성만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논리적 근거로도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을 방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념을 이해하기보다는 논쟁을 이기는 데 더 관심이 있다면 언쟁만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진리라고 알고 믿는 것을 담대하게 간증하십시오.

만일 상대가 계속해서 어떤 쟁점을 밀어붙인다면, 그 사람이 믿는 것을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려 주십시오. 종교적 믿음에 대한 토론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논쟁에 휘말리거나 화를 낸다면,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며 성신과 함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거나 신학적 논쟁에서 점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간증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증은 오직 사랑과 온유함으로만 전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¹

영의 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고린도전서 2:4) 가르쳐집니다. 설사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할지라도 간증을 나눠야 하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복음을 나눌 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참을성 있게 사랑을 담아 말하십시오. 영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영의 속삭임으로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

주
1. 로버트 디 헤일즈, “그리스도인의 용기: 제자로서의 대가”,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73쪽.

청소년을 위한 반과 정원회 회장단은 왜 구성하는 것인가요?

청년 반 회장단과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단은 그 직책을 맡은 사람과 반원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회장단은 반이나 정원회 회원들에 관한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이 맡은 반 혹은 정원회의 회원들, 특히 새로운 회원이나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우정을 나눌지를 알게 됩니다. 회장단으로 봉사하는 청소년은 위임이나 봉사, 의사소통, 위원회 참석과 같은 유용한 지도력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모임과 활동을 조직하고 이끄는 것을 배움으로써 청소년 지도자들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중요성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방법을 배움에 따라 선교 사업이나 그 외 장차 맡게 될 부름을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반과 정원회 회원들 또한 이러한 지도자들을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정원회 회원들은 복음대로 살고, 특히 개인 발전 기록부나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등 많은 도움을 주고 격려해 주는 자기 또래의 누군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 또는 정원회의 회장은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반이나 정원회의 문제점이나 염려, 선행 등을 감독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반 또는 정원회 회장단에 부름을



받는다 것은 청소년들이 더 큰 확신을 얻고, 지도자가 되는 법과 모범을 보이는 방법을 배우고, 반이나 정원회에서 사랑과 단합이 커지도록 돕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는
**극단적인 머리
모양을**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극단적이라 할
만한 머리 모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극단적인 머리 모양은 문화나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너무 극단적인 머리 모양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극단적인” 머리 모양을 판가름하나요? ‘나는 왜 이런 머리 모양을 하지?’ 하고 자문해 보십시오. 단지 “의사 표현”이나 이목을 끌기 위해

평소의 모습을 버리고 특이한 모발 색깔, 길이, 모양을 만든다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말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¹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극단적인 머리 모양을 피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나 개성도 없이 평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런 권고를 하는 이유는 외모가 여러분에 관해 무언가를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복장과 외모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는 신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² 극단적인 머리 모양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가려서 나타나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이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더 전달하게 합니다.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6, 7쪽 참조.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6쪽.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답을 주셨습니다.

우 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생을 살고 다음 세상으로 갔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려 주셨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될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진리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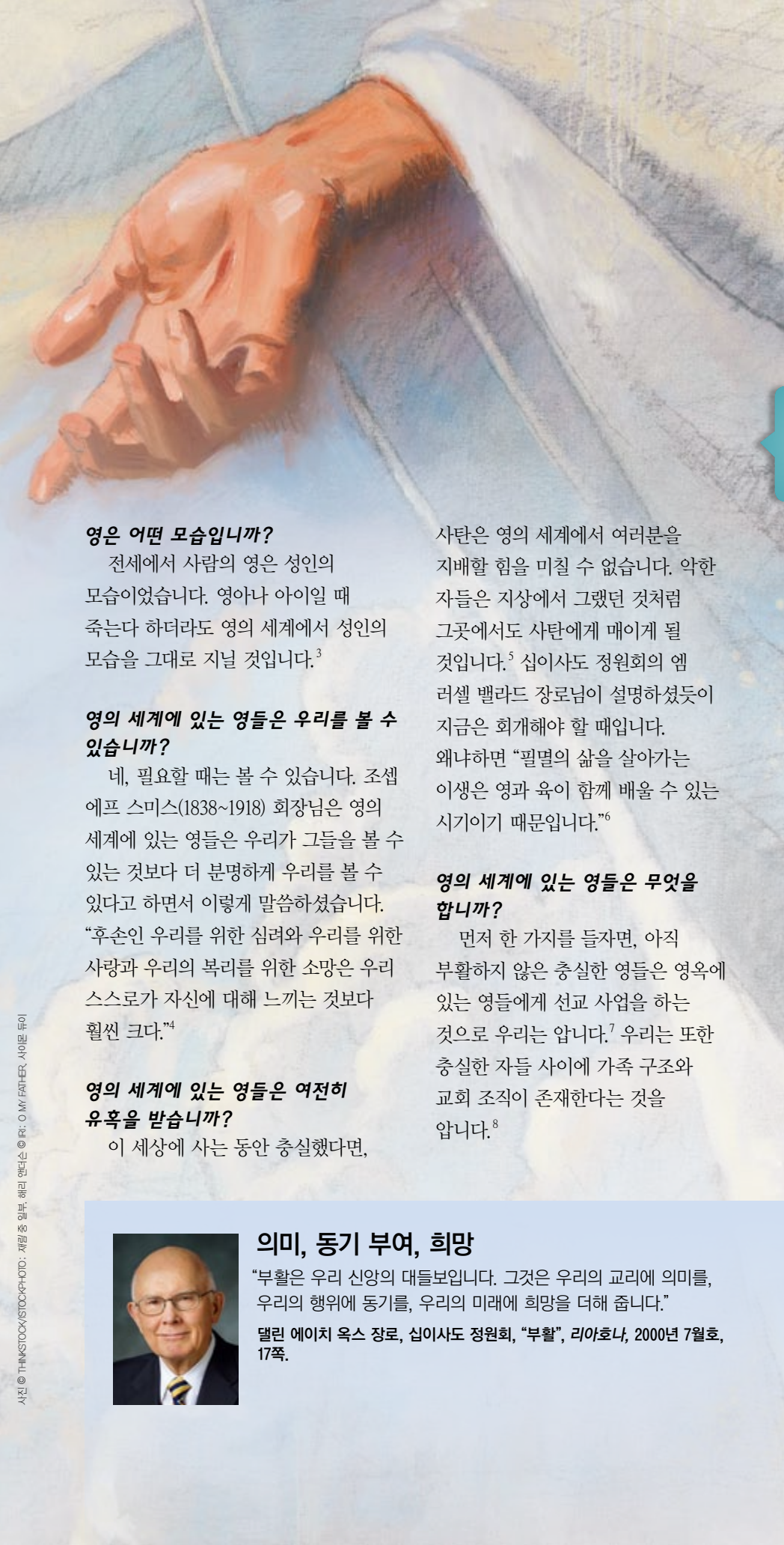
영의 세계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은 한때 지상에 살았던 영은 비록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지상에 머물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¹

영의 세계는 어떤 곳인가요?

영이 어떤 사람이었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곤경과 염려, 슬픔이 없는 행복과 안식, 평화의 상태인 낙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앨마서 40:12 참조) 악인들은 지옥을 경험할 것입니다.(앨마서 40:13~14 참조) 지옥은 “사람의 마음속 낙담의 고통”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²



대화에 참여하세요



3월에는 신권 정원회와 청년반, 주일학교 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공부할 것입니다. 속죄를 통해 오는 많은 축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힘겨운 시기를 보낼 때 속죄와 부활에 대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상황을 돌이켜 본 후, 속죄와 부활에 대한 간증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되었는지 회상해 보고, 가족과 함께, 또는 다가올 일요일 공과 시간에 나눠 보십시오.

영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세에서 사람의 영은 성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아나 아이일 때 죽는다 하더라도 영의 세계에서 성인의 모습을 그대로 지닐 것입니다.³

영의 세계에 있는 영들은 우리를 볼 수 있습니까?

네, 필요할 때는 볼 수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님은 영의 세계에 있는 영들은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손인 우리를 위한 심려와 우리를 위한 사랑과 우리의 복리를 위한 소망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다.”⁴

영의 세계에 있는 영들은 여전히 유혹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충실했다면,

사탄은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을 지배할 힘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지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사탄에게 매이게 될 것입니다.⁵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러셀 벨라드 장로님이 설명하셨듯이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필멸의 삶을 살아가는 이생은 영과 육이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⁶

영의 세계에 있는 영들은 무엇을 합니까?

먼저 한 가지를 들자면, 아직 부활하지 않은 충실한 영들은 영육에 있는 영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⁷ 우리는 또한 충실한 자들 사이에 가족 구조와 교회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⁸



의미, 동기 부여, 희망

“부활은 우리 신앙의 대들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리에 의미를, 우리의 행위에 동기를,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더해 줍니다.”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부활”,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7쪽.



부활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산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21~23 참조)

부활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부활한 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 **불멸.** “이 죽어야 하는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키심을 만나니 …… 다시는 죽을 수 없겠고”(앨마서 11:45)
- **완전한 형태.** “영과 육신은 다시 그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이요.”(앨마서 11:43)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신체적 기형이

사라지고, 결함이 없어질 것이며, 남자와 여자는 영의 완전함, 곧 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전함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⁹

- **아름다움.** 로렌조 스노우(1814~1901)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부활한 남자와 여자보다 더 아름답지 않습니다.”¹⁰
- **영화로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신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젊고 생기 있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떤 식으로든 늙거나 병들거나 불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과 육이 하나로 합쳐져 부활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영광스러우며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¹¹
- **슬픔과 고통이 없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요한 계시록 21:4)

어린아이 때 죽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따르면, 어릴 때 죽은 아이의 부모는 “부활한 후에 그 영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그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¹²

화장되거나 매장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는 화장을 장려하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든 사람이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할 것으로 믿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부활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특별한 기본 분자들은, 우리가 그것을 존중한다면, 비록 그것이 깊은 바닷속이나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든간에 눈깜짝할 사이에 다시 모여져 결합될 것이며 우리의 영은 그들을 소유할 것입니다.”¹³

왜 육체적 부활입니까?

육의 부활은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며 아담 때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쳐진 내용입니다.(모세서 5:10 참조)

부활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언제 부활합니까?

첫째 부활 또는 “의인의 부활”(교리와 성약 76:17)

▲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해의 영광을 받을 선지자들과 다른 의로운 자들(모사이야서 15:21~25 참조)

▲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해의 영광을 받을 자들(교리와 성약 76:50~70; 88:96~98 참조)

▲ 복천년이 시작될 때
달의 영광을 받게 될 자들(교리와 성약 88:99 참조)

둘째 부활, 또는 “불의한 자의 부활”(교리와 성약 76:17)

▲ 복천년의 마지막 때
별의 영광을 받게 될 자들(교리와 성약 76:85; 88:100~101 참조)
멸망의 자식들(교리와 성약 76:43~48; 88:102 참조)

그런데 “악마는 몸이 없으며, 바로 이것이 그가 받은 형벌입니다.”¹⁴ 따라서 악마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게 하려고 이 가르침을 왜곡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에게 육체는 감옥과 같아서 영이 육에서 풀려날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지만, 이러한 믿음은 진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육체적 부활이 필요하다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 **부활은 충만한 기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직 “영과 원소는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충만한 기쁨을 받느니라.”(교리와 성약 93:33) 우리는 또한 사망하여 영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은 “자신들의 영이 자신들의 육체로부터 오래 떠나 있음을 속박으로 여겼[다]”(교리와

성약 138:50)는 사실을 압니다.

-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선택했었기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지상에 태어나기 전, 지구에 살게 된 모든 영은 사탄의 모반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아브라함서 3:23~28 참조) 그 결과로 우리는 필멸의 육신을 받게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은사를 통해 불멸의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전세에서 사탄을 따랐던 자들은 어떠한 육체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 **부활한 후에 우리는 심판받기 위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면전으로 들어가 자신이 한 일에

따라 심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부활의 힘 덕택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¹⁵

- **부활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성막[육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¹⁶
-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교리와 성약 130:22)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년), 279쪽 참조.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24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132쪽 참조.
4. Joseph F. Smith, *Gospel Doctrine*, 5th ed.(1939), 430-31.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282쪽; 엘마서 34:34~35 참조.
6. M. Russell Ballard, “Is It Worth It?” *New Era*, June 1984, 42.
7. 교리와 성약 138:30 참조;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74쪽 참조.
8. 복음 원리(2009), 243쪽 참조; 영의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Dale C. Mouritsen, “The Spirit World, Our Next Home,” *Ensign*, Jan. 1977, 46-51 참조.
9. Joseph F. Smith, *Gospel Doctrine*, 23.
10. Lorenzo Snow, *The Teachings of Lorenzo Snow*, ed. Clyde J. Williams (1996), 99.
11. 보이드 케이 페커, “20 마르크 지폐”, *리아호나*, 2009년 6월호, 23쪽; *New Era*, June 2009, 5.
1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178쪽.
1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276쪽.
1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13쪽.
15. 니파이후서 9:22; 야곱서 6:9; 모사야서 16:8-10; 엘마서 11:41; 33:22; 40:21; 힐라맨서 14:17; 물문서 7:6; 9:13 참조.
1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13쪽.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

그릇된 선택을 막는 아주 훌륭한 보호 방법 중 하나는 익명이란
가면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세대가 지닌 중대한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진척시키는 데에서 가장 뛰어난 세대가 될 배경과 토대를 갖춘 세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대한 선한 잠재력을 감안해 볼 때, 제가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자신답지 않게 행동하게 하는, 심지어 가면을 쓰고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 또는 여러분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는 거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2011년, 저는 엘 톰 페리 장로님과 함께 반명예훼손 연맹의 전국 책임자인 아브라함 폭스맨을 만났습니다. 반명예훼손 연맹은 유대인에 대한 중상모략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입니다.

폭스맨 씨와 만난 자리에서 저는 우리의 교회 홍보 활동에 관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골똥히 생각하더니 사람들에게 가면을 쓰지 않도록 권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큐 클럭스 클랜(Ku Klux Klan)을 언급했습니다. KKK는 20세기 초반에 미국인 대부분에게 큰 영향을 미친 상당히 두려운 조직이었습니다. 똑같은 겉옷과 가면을 걸쳐 자신들의 신분을 알지 못하게 하고는 표적이 된 사람의 집 마당에서 십자가를 불태우며 자신들을 도덕 감시단이라 칭했습니다. 가장 많이 표적이 되었던 대상은 흑인이었지만, 가톨릭 신자 혹은 유대인, 이민자 등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KKK 중 가장 호전적인 부류는 채찍질과 신체적 가해,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폭스맨은 대다수 KKK 단원이 가면을 쓰지 않았을 때는 사업가와 교회 신자들을 포함해서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신분을 감추려고 가면을 썼을 때 일상에서는 하지 않았을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미국 사회에 끔찍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폭스맨 씨는 가면을 쓰고 진짜 정체성을 숨기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¹

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초기 역사를 살펴 보겠습니다. 선지자 조셉과 에머는 11개월 된 쌍둥이, 조셉과 줄리아를 데리고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 있는 존슨 농장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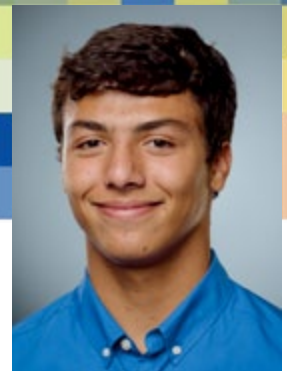
어느 토요일 저녁에 얼굴을 검게 칠한 무리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선지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데리고 선지자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타르를 칠했습니다.

“선지자는 이 하나가 빠지고, 옆구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한 움큼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기고, 질산으로 화상을 입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일요일 예배 모임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적어도 네 명이 폭도 무리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²

선지자 조셉과 그의 형 하이럼을 살해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얼굴에 칠을 했었다는 점 또한 흥미롭습니다.³

가면을 쓰고 자신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끔찍한 일에 여러분 중 어떤 분이 가담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익명이 된다는 것이 어느 시대보다



쉬워진 우리 시대에, 가면을 쓰지 않고 “참되신 신앙 ……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에 충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⁴

그릇된 선택을 막는 아주 훌륭한 보호 방법 중 하나는 익명이란 가면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하지 말아야 할 뭔가를 하게 하려는 심각한 위험 신호이며 대적의 도구 중 하나임을 아셔야 합니다.

외설물에 빠지는 사람들은 흔히 거짓 신분을 위장하고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을 숨기려 합니다.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 부끄럽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가면으로 자신을 숨기려 합니다. 외설물은 하나님 앞에 선 개인의 도덕적 입지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결혼과 가족을 파괴하며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입니다.

이 파괴적인 습관에 빠져들었다면, 회개하고 치유될 수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치유는 회개가 선행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치유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은 치유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걸맞은 행동을 하십시오

근래에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증오와 독설로 가득한, 또 편견에 사로잡힌 글을 쓰려 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플레이밍(인터넷에서 플레이밍은 공공연히 누군가에게 심하게 빈정대는 것을 의미함-웁긴이)이라고도 칭합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적절한 내용의 글을 걸러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 타임스는 “인신 공격, 욕설, 상스러운 말, 불경한 말, …… 흥내내기, 비논리적인 말과 사우팅(메시지를 모두 대문자로 입력하는 것)” 등과 같은 글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타임스 또한 실명 사용을 권장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실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호감이 가고 훌륭한 대화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⁵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고린도전서 15:33~34)

악랄한 의사소통은 명백한 무례일 뿐 아니라 만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후기 성도라면,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구주에 대한 간증이 없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명예를 더럽히거나 사람들 눈에 안 좋아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익명이란 가면을 쓸 때, 그러한 행위에 더 관련되어 사회적 담론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사회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구주께서 가르치신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올바르게 행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대단히 신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더 훌륭하게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교회가 계속 지속되고 왕국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세대의 성공이 필수라는 것을 압니다. 가면을 쓰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올바르게 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

2012년 3월 4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에서 열린 청년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말씀에서 말씀.

주

1. 2011년 6월 14일 뉴욕 시 아브라함 폭스의 사무실에서 만남.
2. Mark L. Staker, “Remembering Hiram, Ohio,” *Ensign*, Oct. 2002, 35, 37.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24쪽 참조.
4. “의와 진리 지키기에”, *찬송가*, 141장.
5. Mark Brent, in “The Public Forum,” *Salt Lake Tribune*, July 27, 2011, A16.



나를 믿어 준 형

♫ 댄 형은 내게는 없다고 확신했던 재능을 키우도록 도와주었다.

데이비드 덕슨
교회 잡지

열 다섯 살 때 나는 내 재능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특정한 어느 한 분야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음치였다.

지역에서 열리는 한 연극 작품에 지원했는데, 내 아카펠라 솔로가 너무도 끔찍해서 노래 중반부가 지났을 때에는 나를 가엾게 여겼는지, 반주자가 올라와 함께 불러 주기까지 했다. 그 후 나는 누구 앞에서도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것처럼 부끄러운 경험은 한 번으로 족했기에 더는 미련을 두지 말고 다른 취미를 찾아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 놀랄 정도로 노래를 잘 하는 큰 형 댄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오디션을 보고 나서 몇 달이 지난 후에 형이 요즘은 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두려워하느냐고 나에게 물어왔다.

나는 형에게 말했다. “노래를 끔찍이도 못해. 난 노래를 부르면 안 돼.” 댄 형은 날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형은 내게 바로 그 자리에서 뭔가를 불러 보라고 설득했다. 긴장이 되었다.

무엇을 불렀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나는 짧게 노래를 불렀다. 노래에 소질이 없음을 명백히 증명해 냈다고 나는 생각했다. 노래를 부르고 나자 댄 형은 내가

형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십시오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복돋아 주고 혹시 어려움을 겪는다면 도움을 주십시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15쪽.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해 주었다. “좋아. 네 목소리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 연습만 더 하면 되겠네.”

교리와 성약 38편 25절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나온다.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길지어다.” 만일 댄 형이 다른 형들처럼 내 노래를 놀렸더라면, 나는 분명 평생토록 마음속으로만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댄 형은 오히려 나를 복돋워 주었다. 나를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형의 조인대로 연습을 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내 노래는 점차 나아졌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삶에서 누리게 되는 큰 기쁨이 되었다. 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 후에도 여러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여전히 내게 아주 큰 기쁨 중 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보라, 사람이 촛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에 두느냐? 아니라, 오히려 촛대 위에 두나니, 이에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비취느니라.”(제3니파이 12:15) 나는 지금까지 오래도록 음악을 즐기고 나누며 빛을 밝힐 수 있었다. 만일 댄 형이 격려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



앤 엠 닙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세계는 가족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와드에서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 내용과 그 간증을 들으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가 기억납니다. 리스 자매님은 자신의 의로운 가족에 대해, 그리고 가족이 영원하다는 지식에서 오는 기쁨과 위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 가족에 대한 그와 같은 축복과 간증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제 소망이 영을 통해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를 제안하려 합니다.

1.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감을 구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기록하십시오. 계명을 계속 지켜서 여러분의 삶이 정화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영을 동반할 자격을 갖추게 되며, 영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이 추구하는 일을 해내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약 20년 전에 선지자께서 발표하신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¹을

읽으십시오. 이 글을 읽고 가족과 관련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에 대한 간증이 더 강화됩니다. 선언문을 읽으면서 교리와 권고, 경고, 약속된 축복 등을 적어 보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어 보십시오.

3. 선지자와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분들은 영감에 따라 말씀을 전하며,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은 우리 생활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가 미래 사회를 이룩해 나가고, 현재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지키는 것을 실행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²

4. 경전을 연구하십시오. 경전에는 의와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에 대한 신앙이란 토대 위에 세워진 많은 가족의 예가 나옵니다. “어떤 가르침을 현재와 미래의 가족에게 적용했을 때 내게 축복이 될까?” 하는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경전, 특히 물문경을 읽으십시오.

5.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특히 “가족” 부분을 공부하십시오. 가족의 책임과 축복에 대해 배우십시오. 복음을 중심에 둔 단합된 가족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 가족들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적어 보십시오. 가족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내용에서 확신과 위안을 찾으십시오.

참으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실린 모든 내용은 가족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족 모두 표준과 계명을 따른다면, 성신을 동반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각 가족은 가족을 현재와 영원토록 축복할 신성한 성전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기에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회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가 영원한 가족 안에서 태어나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부모 아래서 생활하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그러한 경험을 해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계속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남편과 아내, 부모로서 거룩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십시오. 성전에서 결혼하고 자신의 영원한 가족을 이루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15쪽.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6. 공부를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하고 배운 것을 가족에게 적용하십시오.(교리와 성약 88:119 참조)

개인 발전 기록부의 신성한 성품 부분에서 세 번째 가치관 경험을 실행하여 2주 동안 가족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청년들은 감동적인 간증을 전해 주었습니다.(청남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2010], 80~81쪽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은 이러한 간증을 나눴습니다. “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저는 제 여동생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젠 불과 2주 사이에 일어난 변화였어요! 저는 매년 우리 가족들 각각에게 이 목표를 실천해 보기로 다짐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해지니까요!”

7.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고 영을 통한 확인을 구하십시오. 인내하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현재와 영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 조직”이기 때문에 영을 통해 간증이 주어질 것입니다.³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리스 자매님처럼 연단에 서서 “제게는 가족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 간증이 있기에 위안과 기쁨을 느낍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2. *Teachings of Thomas S. Monson*, comp. Lynne F. Cannegieter (2011), 112.
3.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1.1.

숨겨진 싱크홀에 빠지지 않으려면 길 위에
머물러야 한다!

감춰진 위험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갈 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산타 크루즈 섬 정상 부근에는 일명 “쌍둥이”라 불리는 로스 게멜로스가 있다. 이 두 거대한 싱크홀(지하 암석이 용해되거나 기존의 동굴이 붕괴되면서 땅이 꺼져 생기는 구멍을 말함-웁긴이)은 각각 축구장 예닐곱 개가 들어갈 만큼 거대하다. 가장자리에서 보면 지금은 사라진 고대 신전을 지을 석재를 채취하려고 고대인들이 만든 인공 채석장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곳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길을 제외한 열대 지형은 초목이 두텁게 뒤덮여 있다. 길은 견고한 지반을 잘 선택해서 그 위로 나 있다. 길 양옆에 있는 지반은 덤불과 식물, 나무 등으로 뒤덮여 있지만 그다지 견고하지는 못하다.

로스 게멜로스 둘레에 이어져 있는 길 위에서 벗어나 열대우림을 탐험했다가는 어느 순간, 몸무게도 지탱하지 못할 지면을 밟고 말지도 모를 일이다. 얼마나 깊어 떨어질까? 바닥에 닿을 때까지 알지 못할 것이다. 산타 크루즈의 일부 싱크홀은 30미터 이상 되는 것도 있다. 현지 주민에 따르면, 어떤 싱크홀은 너무 깊어서 바닥을 찾지 못했다고도 한다.

특정한 경로로 나 있는 길을 따라가는 일이 마음에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안전하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얇은 지표를 조심하십시오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로스 게멜로스 주변에 난 길은 계명, 선지자의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의무 및 개인 발전 기록부에 나오는 권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 경전 등 많은 상징이 될 수 있다. 복음에 참여할 때,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를 때, 계명의 인도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안전과 평화를 찾게 된다. 그렇지 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때때로 너무 구속받는 느낌이 들어 계명을 따르지 않거나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인생을 자기 방식대로 선택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로스 게멜로스 주위에 난 길이 사람들을 얇은 지표 사이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듯이 계명은 선택의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과 성공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를 선사한다. 우리는 언제나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놓아 주신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증명된 길을 따르는 것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으며,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은 몹시 고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같은 원리를 지혜의 말씀과 같은 계명에 적용해 볼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가 술 마시는 것을 삼가게 했다 해서 우리의 선택의지를 빼앗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계명을



길 위에서

“그런즉 내가 본 바, 너희 주 곧 너희 구속주께서 행하시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행하라. …… 또 그때 너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험악하고 좁은 길에 있나니, 참으로 너희는 문으로 들어온 것이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의 계명을 좇아 행하였고,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성신을 받았으니, 이로써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섰으면, 받으리라 하신 바 그가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느니라.”(니파이후서 31:17~18)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에 따른 결과까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한 계명을 어기겠다고 선택한다면, 그 계명에 따른 축복들을 포기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선택은 술 마시는 것이 허락되었는가, 아니면 이것 또는 저것을 하도록 허용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은 결국 우리가 하늘 왕국의 축복을 원하는가 아닌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개심했기에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길 위의 안전

산타 크루즈에 사는 두 청년인 제시카 피와 노리 에이는 그 사실을 잘 안다. 개종자인 이 둘은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아왔다.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교회 회원이 그다지 많지 않다.(섬 주민 25,000명 중 지부 회원은 125명에 불과하다.) 주변에 온통 술과 마약 같은 유혹이 가득한

터라 험악하고 좁은 길(니파이전서 8:20; 니파이후서 4:33; 31:17~19; 엘마서 7:19 참조)을 걷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노리는 가정 안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보아 왔다. 노리의 가족은 침례 받은 후 1년이 지난 후에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중 여러 명이 교회에서 멀어졌다. 한동안은 노리는 엄마와만 계속 교회에 나왔다. 어떻게 강하게 남을 수 있었을까?

노리는 이렇게 대답한다. “가정의 밤이죠. 한동안 엄마랑 저만 가정의 밤을 했어요. 나중에 오빠하고 아빠가 함께하기 시작했죠. 복음을 공부할 때마다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구는 나한테 해당돼.’ 지금은 아빠와 오빠도 많이 강해지셨어요.”

제시카가 겪은 어려움은 다른 것이었다. 제시카는 이렇게 설명했다. “가족 중에 유일한 교회 회원이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가족 몇몇은 제시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언쟁이

생겨나기도 한다.

“때로는 부모님이, 가족이 교회 회원이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죠. 가족과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게 말이에요. 그건 힘든 일이죠.

문제가 있을 때 길거리나 술을 쳐다볼 수는 없어요. 그러한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그보다는 교회로 가요.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요. 기분이 울적할 때면 노리나 다른 청년들이 언제나 함께해 줘요. 교회에 오면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난 안도감을 느껴요.”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제시카와 노리는 복음대로 사는 데서 기쁨을 찾는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기쁨을 느낀다.

로스 게멜로스 주위에 난 길처럼 계명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계명은 우리가 구주의 속죄를 통해 완전해지도록 인도해 준다.(교리와 성약 82:8~9 참조) 계명을 지키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함을 보여드리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하게 되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영감을 받고, 봉사하고, 성전에 가고, 신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합당해지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해의 왕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그 길은 바로 화평과 행복의 길이다. ■



간증으로 감동받다

마이클 하큰

선교 사업 초기에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봉사할 때였다. 어느 비 내리던 날, 전도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귀가 전까지 우리는 계속 일하기로 했다. 동반자와 함께 나는 몇 집 더 가가호호하기로 했다.

어느 집 문을 두드렸을 때, 한 여성이 나왔고 동반자는 그녀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갓 선교 사업을 시작한 나는 대화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여성이 영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녀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이며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우리 믿음에 호의적이지 않은 교회의 목사였다.

그녀는 친절했으나 몰몬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열성적으로 입증하려 했고 우리 교회가 그러다고 설득했다. 나는 그곳에 서서 동반자가 그녀의 어려운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동반자는 몰몬경이 참되며 몰몬경이 그녀를 도울 수 있다고 간증하려 했으나 그녀는 동반자가 틀렸다고만 주장했다.

그 집에서 30분간 토론을 펼친 끝에 그녀는 동반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삶을 마치면 어디로 가게 되죠?” 나는 야까처럼 그녀가 내 동반자의 가르침을 열성적으로 반박하려는 것을 알았다. 내 동반자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해의 왕국에서 가족과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간증했다. 더 말을 이으려는 동반자를 멈추게 한 후 그녀는 방금 말한 영원한 가족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동반자는 다시 똑같은 답을 되풀이했다. 나는 영을 매우 강하게 느꼈으며 그녀의 눈은 그녀 역시 깊이 감동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그 짧지만 힘찬 간증을 들은 그녀는 논쟁을 멈추고 몰몬경을 받았으며, 다음에 다시

와서 남편과 함께 다시 몰몬경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날 저녁에 동반자의 간증에서 발휘된 효력을 놀라워하는 마음으로 동반자와 함께 집을 향해 걸어가던 기억이 난다. 나는 그때 영을 동반하는 간증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가르침의 도구임을 깨달았다. 나의 동반자와 그가 그날 밤에 했던 간증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 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간증을 나누겠다고 결심했다. 내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상관없이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영을 더 많이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영으로 가르칠 때 가장 훌륭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

마이클 하큰은 미국 유타 주에 산다.

몰몬경이 출판된 곳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곳으로
함께 가 볼까요?

젠 핀보로우
교회 잡지

18 29년 어느 여름날, 조셉 스미스는 미국 뉴욕 주 팔마이러에 있는 붉은 벽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에그버트 비 그랜딘 씨의 인쇄기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막 금판에서 번역을 끝낸 상태였고 그랜딘 씨가 5,000권의 몰몬경 초판을 인쇄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 새로운 경전을 사람들이 읽어 볼 수 있도록 이듬해 봄까지는 인쇄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여덟 살 소년인 루크 에스는 그랜딘 건물에 가서 183년 전, 그해 3월에 몰몬경이 출판된 과정을 설명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그랜딘 씨의 새로운 인쇄기는
한 번에 16쪽씩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구형 인쇄기에 비해
두 배나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 방에는 몰몬경 인쇄에
쓰였던 기구들의
모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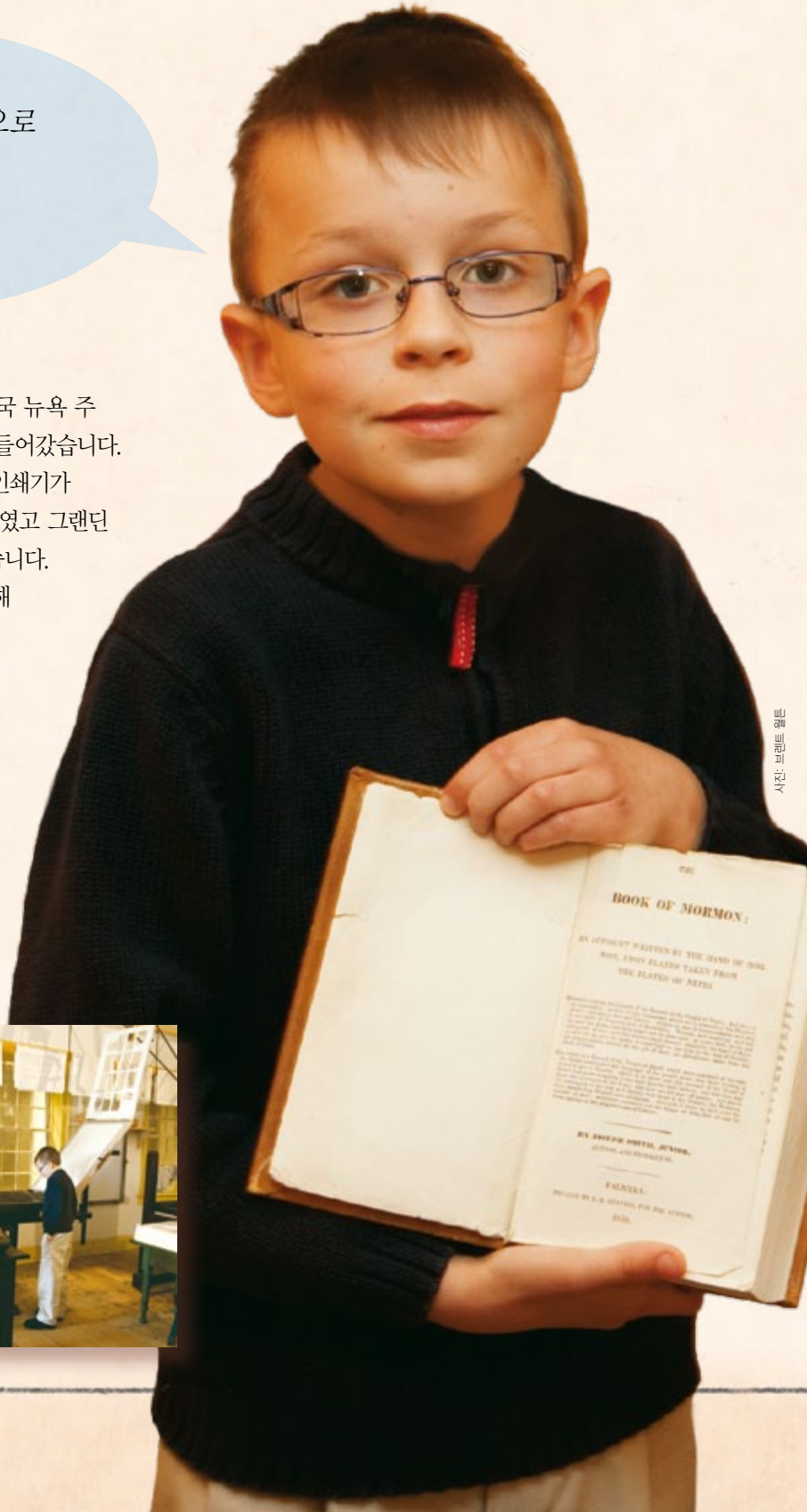


사진: 브랜트 윌튼





이 상자 안에는 작은 금속 활자 수천 개가 들어 있습니다. 영어 대문자는 맨 위에 있는 상자에 보관했기 때문에 "upper case[어퍼 케이스]"라고 불렸습니다.



식자공은 한 번에 한 글자씩 식자용 스틱이라는 도구 속에 넣었습니다.



잉크 방망이로 잉크를 활자에 칠했습니다.

인쇄한 종이는 널어서 말렸습니다.



접지라고 부르는 이 커다란 종이를 제본소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접고, 작은 낱장으로 자른 후 한 데 묶었습니다.

물문경은 1830년 3월 26일에 처음으로 판매되었습니다. 한 권당 가격은 1.75달러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4달러 정도입니다.) 그만큼 액수를 마련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동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수천 권에 달하는 물문경이 매년 108개의 언어로 출판됩니다!



조셉 스미스는 물문경을 성경처럼 금속 글자가 찍힌 고급 가죽 커버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니파이가 늦숙판을 얻는 이야기는 루크가 제일 좋아하는 물문경 이야기입니다. (니파이전서 3~4장 참조) 니파이가 주께서 명하신 일에 열심히 임한 그 이야기를 루크는 좋아합니다. 루크는 물문경을 출판할 때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식자공들은 모든 활자를 뒤집어서 뒤로 놓아야 했단니까요!"



릭의 새 책

로라 버드
실화에 근거

“선하고 친절하며 남을 도울 때마다 나는 행복해요.”(“A Happy Helper”, Children’s Songbook, 197)

릭은 새 경전 앞면에 찍힌 황금빛 글자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친구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굉장한걸!”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빨간색 물문경은 처음 봤어.

제이콥도 한 마디 거들었습니다. “셔츠 주머니에 쪽 들어가겠다.”

“맞아.” 릭은 주머니에 경전을 넣었다가 다시 꺼내보였습니다. 그때 마침 초등학교 회장님께서 함께 나누는 시간에 온 어린이들에게 환영 인사를 하였고, 소년들은 이야기를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릭은 간간히 새 경전에 눈길이 끌렸습니다.

초등학교가 끝나자 릭은 여동생을 데리러 유아반에 들렀습니다. 아빠가 이미 거기에 계셨습니다.

“엄마 어디에 계신지 아니?”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아뇨, 엄마가 빨리 집에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배고파요!”

엄마를 찾았을 때 릭의 배는 꼬르륵거리고 있었지만, 엄마 곁에 버드 형제님과 자매님이 계신 것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버드 형제님은 서 계셨고 버드 자매님은 여느 때처럼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는 버드 자매님이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계셔서 근육을 움직이는 게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자매님은 종종 고통스러우셨지만, 늘 모두에게 웃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릭은 버드 형제님과 자매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 안녕, 릭.” 버드 형제님은 릭과 악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초등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모두에게 이 책을 보여줬어요.” 릭은 조그마한 빨간색 책을 들어보였습니다.

“그게 뭐지?” 버드 자매님이 물으셨습니다.

“제 새 몰몬경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보내 주셨어요.” 릭은 자매님께 몰몬경을 건네드렸습니다.

“이런 건 처음 보는구나.” 버드

자매님은 빨간 포켓용 책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셨습니다. “정말 작고 가볍구나. 나는 몰몬경을 읽는 걸 좋아하지만, 경전을 들면 손이 피로해져서 몇 분 후에 멈춰야 하거든. 하지만 이 책은 오랫동안 들 수 있겠는걸.” 자매님은 릭에게 그 책을 돌려주셨습니다.

릭은 자신의 멋진 경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버드 자매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요. 버드 자매님 이거 가지세요.” 릭은 몰몬경을 도로 자매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정말이니?” 버드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릭은 “그럼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 릭. 고맙구나.” 버드 자매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플 때 경전을 읽으면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단다. 네 작은 경전이 큰 도움이 될거야.” 자매님은 손을 뻗어 릭을 꼭 안아 주셨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너 왜 이렇게 조용하니? 책을 드려서 슬픈 거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멋진 책이었지만 집에는 몰몬경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몰몬경 안에 든 게 걸모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다정하게 릭의 어깨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다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제가 몰몬경을 다른 분에게 드린 걸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릭, 절대 그러시지 않을 거야. 확실해.”

릭은 엄마 말씀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로라 버드는 미국 오리건 주에 삽니다.



“하기 어려운 일을 시도하고 해낸다면, 무척 행복한 기분이 들고, 친절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 시작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메리 앤 쿡,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친절하렵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120쪽.



메건의 양들

줄리나 케이 밀스

실화에 근거

“서로 섬기고자 일함”(모사이사서 2:18)

“가 축은 모름지기 먹잇값을 해야 한다.” 아빠의 말씀이 메건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개들은 양을 지키고 닭은 달걀을 낳습니다. 양은 내다팔 양털을 생산합니다. 메건은 매년 봄에 양털 깎는 일을 도왔는데, 두꺼운 양털은 언제나 푸른 들판에 녹아드는 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메건의 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발육이 부진한 한 살배기

삽화: 게이 프렌시스



양들이었는데, 몸집이 너무 작아 먹잇감을 할 만큼 충분한 양털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 양들을 도축장에 맡기려 하셨지만, 메건은 이 작고 연약한 새끼 양 두 마리에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메건은 양을 데리고 있게 해 달라고 졸랐고, 아빠는 마침내 허락하셨습니다. 아빠는 “하지만 너 혼자 그 양들을 돌봐야 해.” 하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메건은 양이 먹이를 먹기 시작하면 주려고 생일 때 받은 돈으로 건초를 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은 다 써버렸고 아빠는 마을 밖, 임대한 목초지에서 그 양들이 풀을 뜯게 하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양들을 목초지로 보내면 잘 볼 수도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메건은 양이 마지막 건초를 뜯어 먹는 것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건초가 바닥이 날 것이었고, 메건은 양을 먹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메건은 울타리에 기대어 양의 새하얀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저 멀리서 플라워 아저씨가 장미를 가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집 더 아래에서는 월멧 아주머니가 우편물을 꺼내기 위해 느릿느릿 절룩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월멧 아주머니는 홀로 사시는 미망인이었습니다. 때때로 메건의 오빠가 월멧 아주머니를 위해 낙엽을 치우지만, 월멧 아주머니가 수고비를 줄 형편이 안 되기에 오빠는 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메건이 보니 월멧 아주머니네 집의 잡초가 꽤 무성했습니다. 메건은 “아주머니를 위해 잔디를 깎아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양을 먹일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

갑자기 메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양이 월멧 아주머니네 풀을 뜯어 먹으면 먹이를 따로 안 줘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까요! 메건은 양 머리를 재빨리 쓰다듬고는 월멧 아주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연 월멧 아주머니는 메건을 향해 방긋 웃으셨습니다. 누군가 찾아왔다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메건은 한껏 들떠서 아주머니께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월멧 아주머니 이걸 우리 둘에게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거예요!” 메건은 말을 마쳤습니다. 메건은 숨을 참고 답을 기다렸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월멧 아주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네 친구들 덕분에 내 잔디밭도 말끔해지겠어. 내일 아침 일찍 양을 데려오렴.” 메건과 월멧 아주머니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고, 메건은 집에 오는 내내 싱글벙글했습니다.

다음 날, 오래도록 지속될 멋진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메건은 매일 아침이면 등교하기 전에 월멧 아주머니 댁으로 양을 데려갔고, 오후에는 아주머니 댁에 잠시 머물다가 양을 데리고 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월멧 아주머니의 잔디는 늘 적절한 길이를 유지했고, 메건의 양은 먹이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

줄리나 케이 밀스는 미국 애리조나 주에 산다.



이웃 아주머니께서 숲에 다녀오셨는데, 그곳에서 식용 버섯을 따 오셨어요. 아주머니는 우리 가족에게 버섯을

조금 덜어 주셨고, 저는 어머니를 도와 버섯을 씻었어요. 버섯을 다 씻자, 문득 이웃 아주머니가 혼자서 그 많은 버섯을 다 씻으셔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찾아가니,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 주셨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도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그분도 아주머니를 도와주셨을 거예요.

조나단 엘, 5세, 스웨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신권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생의 길을 밝혀
주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보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기회를 얻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 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성신은 그것을 제게
밝혀 주셨고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밝혀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90~91, 93쪽에서 발췌.

그분은 살아 계시니까요

머리빅 파시게이, 필리핀 그로스옥시덴탈
머리사 워드슨,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누가복음 24:34)

와 토이는 학교로 들어가기 전에
밖에 걸린 형형색색의 필리핀
국기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께서
인사하셨습니다. “아침 기도를 할까요?”

와토이 주변의 모든 친구들은
이마, 가슴, 어깨 손으로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런 후 수업 시작할 때
항상 하는 기도를 암송했습니다. 늘
그렇듯, 와토이는 기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인 후 소리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와토이는 매번 다르게 기도를
드립니다. 집과 초등학교에서
배운 방법대로 말입니다.

와토이가 기도를 끝내고
머리를 들자 선생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와토이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수업 후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토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토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성호를 긋거나 아침 기도를
암송하는 걸 본 적이 없구나. 이유를
말해 주겠니?”

와토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은 화난 것이
아니라 단지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와토이는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했습니다.

와토이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 계세요!”

선생님은 와토이의 말을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이야기해 줘서
고맙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구 연습을 하러 가는 와토이는
마음이 따뜻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토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

부활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립니다. 68~69쪽에
나오는 부활절 최종
점검 활동은 여러분이
이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회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칠 십인 정원희의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장로님은 어린 시절에 여동생과 함께 강에서 작은 배를 타고 놀았습니다. 처음에는 신 나는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기슭에서 꽤 많이 멀어지면서 배가 위험한 강 하류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도와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배 쪽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구하셨고, 그건 아이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셨으며 그 덕분에 우리는 회개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주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

노래와 성구

- “아들 보내셨네”
(어린이 노래책, 20~21쪽)
- 요한복음 3:16



구주에 대해 간증한 선지자들

아래의 간증을 그 간증을 한 선지자의 그림과 함께 짝지어 보세요. 상자 안에 선지자의 번호를 써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요한1서 4:14)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잃어버린 바 되고 타락한 상태에 있으며, 그들이 이 구속주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그러하리라 하시더라.”(니파이전서 10:6)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참으로 그는 아들이시오, 아버지의 독생자시오, 은혜와 자비와 진리가 총만하시도다. 보라, 세상의 죄, 참으로 자기의 이름을 굳게 믿는 각 사람의 죄를 제하려 오시는 이가 그이시니라.”(앨마서 5:48)

“또 이렇게 되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같은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힐라맨서 14:8)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조셉 스미스—역사 1:17)

“예수는 …… 육신을 입은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그분은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십니다.”(“내 구주 살아 계시다!”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25쪽)



1. 앨마



2. 조셉 스미스



3. 레이맨인 사무엘



4. 요한



5.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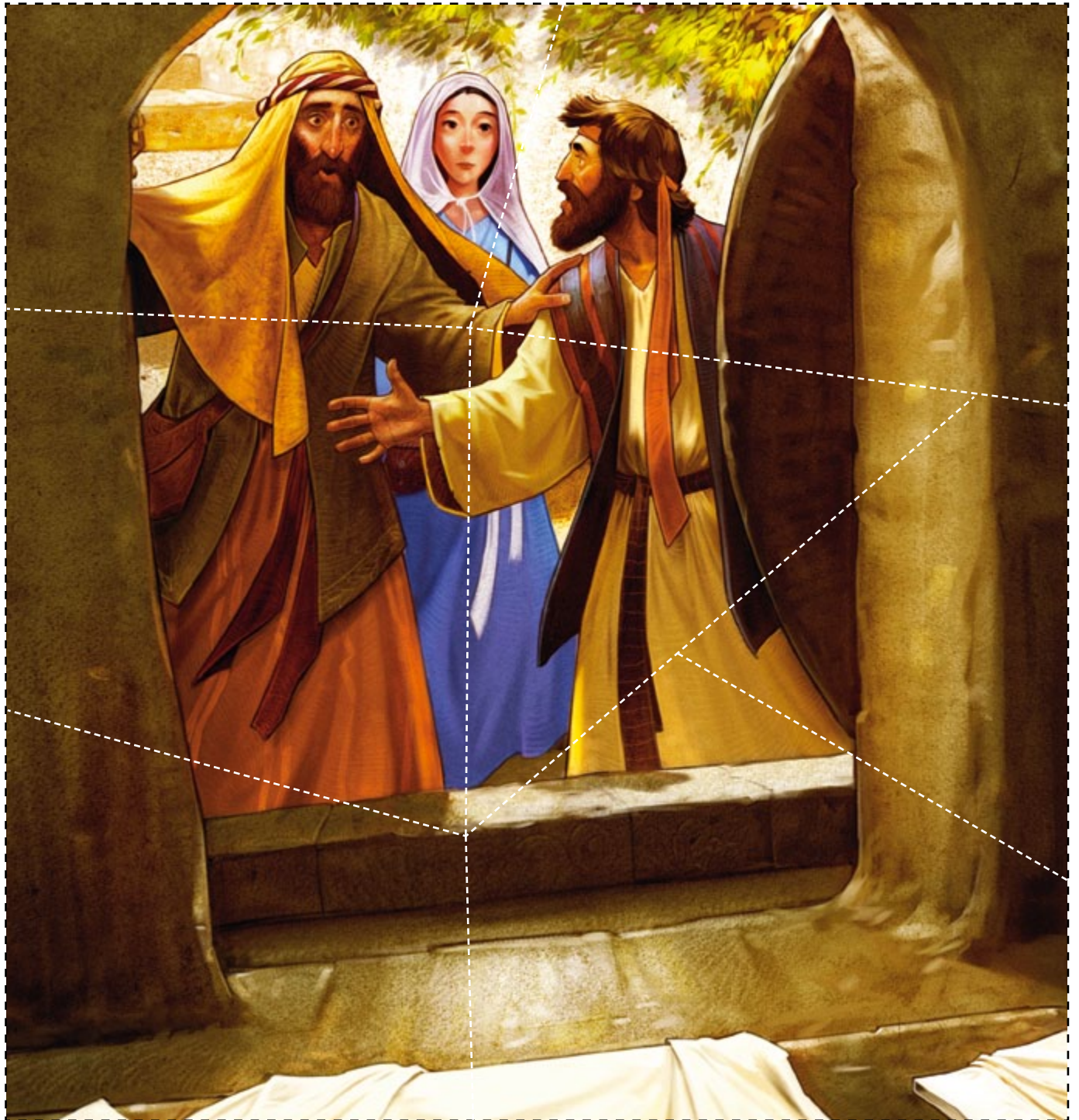


6. 리하이

이야기해 봅시다

“아들 보내셨네”를 부르고 가사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 가족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 그림



이 최종 점검 활동을 통해 부활절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속죄,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왼쪽 그림을 표시된 대로 퍼즐 조각으로 자릅니다. 부활절이 되기 한 주 전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퍼즐 한 조각씩 고릅니다. 퍼즐을 맞출 곳을 찾은 후, 그 자리에 풀이나 테이프로 붙이기 전에 퍼즐판에 적힌 일을 실천합니다. 그림이 완성될 즈음에 여러분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초등회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아 있는 사도들이 어떻게 썼는지 읽어 보세요.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이 생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3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매주 성찬을 취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성찬식 모임에서 특히 경건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성탄절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배운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생각나요?

부모님과 요한복음 3장 16~17절을 읽고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65쪽에 있는 ““그분은 살아 계시니까요” 이야기를 읽어 보세요. 친구들에게 의미 있는 부활절 메시지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경전 이야기 중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부모님께 부탁해서 biblevideos.lds.org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 비디오를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

채드 이 패러스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



이사벨은 봄이 되어 행복했습니다. 이사벨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푸른 풀밭에서 노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사벨은 부활절이 다가와 행복했습니다. 이사벨은 부활절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압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립니다.



초등학교에서 마틴
자매님이 반 어린이들
모두에게 크레용을
주셨습니다. 자매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을 그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이클은 가족을
그렸습니다.
일라이자는 친구를
그렸습니다.
앤서니는 집을 그렸습니다.



이사벨은 그림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모두 잘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사벨은 무엇을 그릴까 고민했습니다. 이사벨은 가족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친구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사벨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모두에게 '구주'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사벨은 크레용을 집어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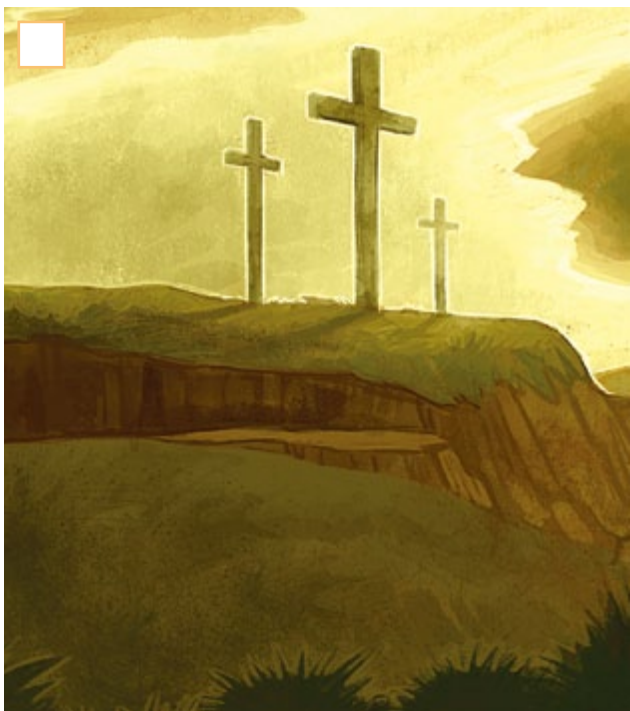
마틴 자매님은 이사벨에게 무엇을 그렸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사벨은 “예수님을 그렸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채드 이 패러스
교회 잡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역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을 보여 주는 그림을 살펴보세요. 이 사건들이 일어난 차례대로 상자 안에 숫자 1, 2, 3, 4를 써 넣으세요.



교회 소식

더 많은 교회 소식과 행사를 보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지도자들, 회원들에게 가족 역사를 성전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하도록 장려하다

헤더 휘틀 위클리
교회 소식과 행사

2012년 10월 제일회장단은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채택하여, 회원들이 성전 사업에서 자기 자신의 가족 이름을 사용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회원들이 성전 참여와 가족 역사 사업을 더 잘 수행하도록 돕는 다섯 가지 주요 방안을 제시했다.

회원들은 LDS.org 및 FamilySearch.org에 담긴 자료와 도구를 활용하여 성전에 가져갈 이름을 찾고 준비하며 나누라는 부름에 응할 수 있다. 제일회장단 서한에 담긴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교회 회원들이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찾아 성전 의식을 위해 가져간다면 성전에서 더욱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것이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조상 중 한 분을 위해 대리 의식을 받는다면 성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성스러워지고 더 큰 축복들이 올 것입니다.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자신의 조상들을 찾는

것입니다.’”(“죽은 자를 구속하는 기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94쪽)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족 이름을 준비하여 성전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더 배워 봅시다. LDS.org를 방문하여 **자료 및 가족 역사**, 그리고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의 조상을 위한 성전 사업을 합니까?** 를 클릭합니다. (**우리는 왜 가족 역사 사업을 합니까?** 아래에 있는 비디오)

2. “자신의 가족 역사 조사를 하기 어려운 회원의 경우 다른 회원이나 성전에서 제공하는 이름으로 대리 의식을 행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많은 교회 회원들이 성전에 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회원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격려한다. 인근에 성전이 없는 회원들은 가족 역사 조사에 힘쓰고, 다른 봉사자들이 성전 의식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조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족 역사 조사 및 사업은 이미 전부 다 마쳤다면 난감해 하는 회원들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회원들은 가끔씩 다른 회원들의 가족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에 참석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lds.org/temples를 방문하여 **성전**

찾기를 클릭한다. 다음 성전 방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특히 청소년과 청년 독신 성인들은 “자신의 가족 이름이나 소속 와드 및 스테이크 회원들 조상의 이름으로 성전 사업을 할” 것을 권고받는다.

“젊은 친구 여러분, 삶에서 사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스코트 장로가 물었다. “자신의 조상을 찾는 데 몰두하고, 성전에서 성스러운 대리 의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준비한 다음, 성전에 가서 그분들을 대신해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나이가 더 들면 다른 의식들을 받는 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보다 더 훌륭한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스코트 장로는 말했다. (“죽은 자를 구속하는 기쁨”, 94쪽)

LDS.org를 방문하여 ‘가족 역사’ 편에서 **가족 역사 시작하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들어간다. 성전에 가져갈 가족 이름을 준비하는 다섯 단계가 나와 있다.

4. 신권 지도자들은 모든 회원들이 “마음을 조상에게 되돌려야 한다는 교리와, 성전 참여를 통해 얻는 축복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는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를 보충하는 지도자 참고 자료**다. 이 자료는 회원들이 돌아가신 조상을 찾고 그들을 위해



교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쇄 및 온라인 자료들은 회원들이 성전에 가져갈 가족 이름을 왜,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성전에서 구원의 의식을 행하는 책임을 잘 이행하도록 돕는 와드 및 스테이크 신권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몇몇 스테이크가 어떻게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활용하여 개인과 가족을 강화했는지를 잘 보여 주는 보충 자료 동영상도 있다.

LDS.org에 들러 **자료, 모든 부름, 가족 역사**, 그리고 **지도자 참고 자료**를 클릭한다. 그곳에서 지도자 참고 자료를 탐구한다.

5. “많은 수의 가족 이름을 예약해 놓[은 사람들] …… 필요한 의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이름들의 예약을 적절한 시기에 해지하여 [다른

사람들이] 의식을 행할 수 있게 [하도록 권유받는다].”

현재 FamilySearch.org에 회원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을 위한 의식을 직접 받기 위해 예약해 놓은 이름은 1,200만 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 많은 이름들이 수년간 예약된 상태로 남아 있다.

“[조상들도] 자신의 의식이 수행되기를 계속 기다려야 한다면,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스코트 장로는 말씀했다. “우리는 예약된 이름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에게 그것을 여러분의 일가친척이나 와드 및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나눠 줘서 그들의 도움으로

의식을 완수하시도록 권고합니다.

기꺼이 돕고자 하는 와드 및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성전 카드를 나눠 주거나 FamilySearch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름을 직접 성전에 제출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스코트 장로는 말했다. (“죽은 자를 구속하는 기쁨”, 94쪽)

위에 언급한 시작하기 편, 다른 **사람과 이름 나누기** 아래 **비디오 보기**를 클릭한다. 그런 후 비디오 **성전 사업을 위한 이름 내기**를 시청하여 예약된 이름을 어떻게 나누는지 정보를 얻는다.



교회 사업은 미디어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리안 모그넥
교회 소식

전 세계 교회 이야기를 더 훌륭히 담아 내기 위해 출판 서비스부는 미디어 프로페셔널 데이터베이스(mediapro.lds.org)를 새로 만들었다. 이 사이트는 교회를 위한 필름이나 비디오, 방송이나 실시간 이벤트, 디지털 미디어 제작에 관심이 있는 미디어 전문가를 위한 인명록이다.

유능한 전 세계 미디어 전문가를 찾아 내는 것이 이 데이터베이스의 주된 목적이다. 교회는 경험이 많으며 “검증이 된” 전문가나 개인, 기업들을 되도록 더 많이 아우르고자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책임자, 스콧 올슨은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여러 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미 동호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미디어 프로페셔널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국제적 미디어 전문가 팀을 동원하여 더욱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새로운 미디어 사업 수행이 필요하면 유타 주 현지 업자가 고용되어 현장으로 날아가 비디오를 찍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 교회 본부로 돌아와 작업을 마무리했다. 교회에도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청각 전문가가 있지만 진행해야 할 미디어 사업이 너무 많으므로 내부 팀이 그 모든 것을 완수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전 세계 유능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는 교회 미디어 사업의 미래에 상당히 중요하다.

올슨 형제가 덧붙였다. “교회가 미디어프로페셔널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더 많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이트의 목적은 경험 있는 미디어 전문가들이 교회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새 프로젝트 수행이 필요한 경우 그들에게 연락을 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의사가 있는 미디어 전문가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약력을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된다. mediapro@ldschurch.org 미디어 전문가들은 상세한 업무 경력과 함께 과거 작업 견본이나 보유하고 있는 기술 기능, 참여 가능 시간대 등의 정보를 기입할 수 있다. 올슨 형제가 설명했다. “어떤 기술 기능은 비디오나 필름 혹은 웹에 걸쳐 통용되므로 여러분의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MediaPro에 등록한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 일에 참여할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와 기술을 등록하면 교회는 그들을 찾고 또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사진 출처: 매튜 라이더

남아메리카 교회 성장, 옥스 장로와 베드나 장로 보고

제이슨 스웬슨
교회 소식

교리와 성약 서두에는 교회가 “희미한 데서 그리고 캄캄한 데서”(1:30) 나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다. 그와 같은 날은 남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 이미 온 것 같다.

“우리는 희미함과 캄캄함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 10월 남미 여행에서 돌아온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선언했다. “[남미] 정부 관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교회 대표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베드나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함께 남아메리카 남 지역을 방문했다. 선교 및 신권 지도자 모임, 그리고 지역 순방이 일정에 포함되었으며, 아울러 청소년 및 청년 독신 성인 영적 모임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에서 방송되었다.

이번 순방 지도자들은 해당 지역 4개국에서 봉사하는 1,800여 선교사들과 만났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선교사 모두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옥스 장로가 밝혔다. “그들은 북미와 남미 지역에서 온 인상적인 선교사 부대였습니다.”

아울러 15,000여 명의 사람들이 지역 청소년 및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두 번의 영적 모임을 시청했다. 옥스 장로는 청년 독신 성인 영적 모임을 감리했는데, 이 모임은 326개 지역 방방곡곡에 방송이 되었다. 베드나 장로는 청소년 영적 모임을 감리했는데, 이 예배는 439개 지역에서 12~18세 청소년과 그 부모들이 모여 시청을 했다.



교회 소식 및 남아메리카 남 신도부의 영적 모임 사진 사용

각 훈련 모임과 영적 모임에서 함께한 내방 지도자 형제 두 분은 성찬식 참석과 성전 엔다우먼트 및 결혼, 그리고 젊은이들의 전임 선교사 사업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실질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청소년 영적 모임에서 청년과 청년들은 질문을 하도록 권유를 받았다. 총관리 직원들은 점점 더 사악해지는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선교 사업 준비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했다.

지도자 형제들은 아울러 회원 활동 유지와 선교 사업 증대를 통해서만 지역 실질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역 신권 지도자들에게 권고했다. 숙련된 미래 지도자 세대를 확보하려면 결실을 맺는 핵심 귀환 선교사 그룹이 필요하다고 옥스 장로는 설명했다.

당시의 지역 회장, 칠십인 머빈 비 아놀드 장로는 총관리 직원과 그 부인들의 방문이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들어 올려 주며, 유익했다”고 표현했다.

또한 “그분들의 사랑과 친절, 가르침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칠레 산티아고의
몬시그노어
리카르도
에자티 안드레오
대주교와 만났다.**

몬슨 회장, 보이스 성전을 재헌납하다

사라 제인 위버
교회 소식

20 12년 11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아이다호 보이스 성전을 재헌납하였다. 본래 1984년에 헌납된 이 구조물은 마침내 대대적인 수리를 위해 15개월간 문을 닫은 바 있다.

재헌납 전날 저녁 9,200여 청소년들이 모여서 청소년 문화 행사를 거행했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보이스 주립 대학교 캠퍼스 타코벨 아레나를 가득 메웠다. 그들 가족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여러 장소에 모여서 그 행사를 시청해야 했다. 그 모임은 보이스 성전 지역의 여러 스테이크 센터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아이다호 보이스 성전 재헌납 전야 문화 행사에서 교회 회원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했다.

방송되었다.

청소년 문화 행사 부위원회 의장인 게리 워커는 이번 모임이 춤추기보다는 성전 준비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고 했다.

기념 행사에서 몬슨 회장은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성전은 의로운 등불로 그 불빛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빛을 발합니다. …… 우리는 그 빛을 소중히 하며, 우리는 이 성전과 그 밖의 다른 성전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축복에 대해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나 장로 또한 일요일에 참석한 헌납 모임에서 이렇게 가르쳤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성전은 따뜻함과 빛, 밝음과 광채를 발합니다.”

아이다호 보이스 성전은 해당 지역 서른한 개 스테이크 100,000여 후기 성도를 위해 운영된다. ■

청소년 활동용 온라인 자료를 준비하다

전 세계의 후기 성도 청남 청년을 강화하고자 교회는 청소년 활동용 온라인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LDS.org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청소년 활동 부분은 성인 고문과 청소년 지도자들이 교회 전역의 스테이크 및 와드의 아론 신권 정원회, 청년반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을 돕고자 개발되었다.

이 사이트는 청소년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교회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전임 선교사 연령 기준 변경, 새로운 청소년 학습 자료인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청소년에게 가족 역사 참여를 권유하는 것 등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변화가 교회에서 강조하는 바를 잘 나타낸다.

청남에게 이 사이트는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 발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영적인 면에 중점을 둔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을 보완해 준다. ■



© R



따뜻한 날씨를 보인 2012년 9월 봉사의 날 동안 체코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 후기 성도 자원 봉사자들이 질리나 저수지 가파른 독을 따라 나아가며 빈 병이나 종이, 플라스틱이나 마분지, 스티로폼 등 쓰레기를 주우며, 여러 시간 동안 즐겁게 일을 했다.

슬로바키아 공화국 봉사의 날

2012년 9월 8일, 체코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130여 회원들은 전임 체코 및 슬로바키아 선교사들과 같이 슬로바키아 공화국 질리나에 모여 봉사를 하였다. 질리나 저수지 기슭의 쓰레기 1.5톤을 치우고, 시 유치원과 탁아소 건물을 수리했으며, 시 경작지 김매기를 실시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들 얼굴에 퍼지는 미소와 그들 눈가에 나타나는 기쁨을 보니 놀라울 뿐이에요!” 자원봉사자 한나 세이다로바가 언급했다. 그의 가족은 슬로바키아 초기 개종자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그렇게 좋아하나 봅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고 봉사하고 싶고, 그런 일을 사랑합니다.”

단행본 스페인어 신약 성경 출간

교회는 최근 스페인 Santa Biblia: Reina Valera 2009를 기반으로 한 신약 단행본을 내놓았다. 교회 회원과 비회원 모두 더욱 편리하게 경전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새로운 신약 단행본은 표준 규격으로 신약 원문과

각주, 그리고 조셉 스미스 번역 발췌문을 담고 있다.

부드러운 표지의 스페인어 신약 성경 단행본은 교회 배부 센터나 store.lds.org에서 구할 수 있다.(물품 번호. 09215002)

남아메리카 남 지역 회장단 변경

2013년 1월 6일, 그동안 칠십인 회장단 일원으로 봉사하던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는 그 자리에서 해임되고, 머빈 비 아놀드 장로의 후임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아메리카 남 지역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아놀드 장로는 교회 본부의 새로운 부름을 받았다.

조지 에프 제볼로스 장로와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는 계속하여 지역 회장단 보좌로 봉사를 한다.

“우리는 이 형제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를 표하며, 이들이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제일회장단은 서한을 보내 그렇게 밝혔다.

보츠와나 성도들, 첫 스테이크 창립에 기뻐하다

2012년 11월 900명에 달하는 교회 회원들이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모여 이 나라 최초의 스테이크인 새 가보론 보츠와나 스테이크의 조직에 함께하였다.

아프리카 동남 지역 회장인 데일 지 렌랜드 장로와 지역 칠십인, 콜린 에이치 브릭넬 장로가 모임을 감리했다. 클레멘 엠 마츠와고타타가 스테이크 회장으로, 제프리 템보가 제1보좌로, 그리고 오웬츠 에스 모케니가 제2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이 스테이크는 피난의 장소, 배움의 장소, 안전과 선함의 장소, 질서의 장소, 친절과 사랑의 장소, 하나님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루드푸트 남아프리카 스테이크 회장인 다니엘 홀이 말씀했다.

지뢰밭에서 구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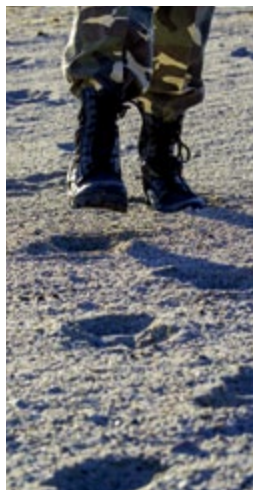
러셀 웨스트가드

걸 프 전쟁 당시 나는 쿠웨이트에서 한 작전 팀을 이끌었다. 적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우리는 안전을 위해, 그리고 뭔가 정보 가치가 있는 것을 찾기 위해 적의 전투 진지를 수색했다.

내가 막 함락된 적진의 전투 사령부에 들어갔을 때, 한 영국인 하사가 “멈춰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세요!” 하고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병커 밖으로 머리를 들어 보니 내 부하 한 명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게 보였다. 그녀는 문서를 가져오려고 공터로 발을 디뎠는데, 사실 그곳은 커다란 지뢰밭 한복판이었던 것이다. 하사의 외침을 듣자 그녀는 멈추었고, 자신이 처한 위험을 인지했다.

우리 팀은 지뢰밭 가장자리로 모였고, 우리는 이 젊은 병사가 너무나 겁에 질려 온 몸을 사시나무처럼 떠는 것을 보았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구조하기 위해 다른 병사들을 보낼 수는 없었다. 그러다간 그녀뿐 아니라 모두가 위험해질 테니까. 상의나 망설임없이 우리는 그 병사와 대화하기 시작했고, 위안과 격려와 함께 해야 할 일을 전해 주었다. 우리는 그녀의 뺨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대답에서도 두려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의 확신에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모래 위에서 희미하게나마 자신의 발자국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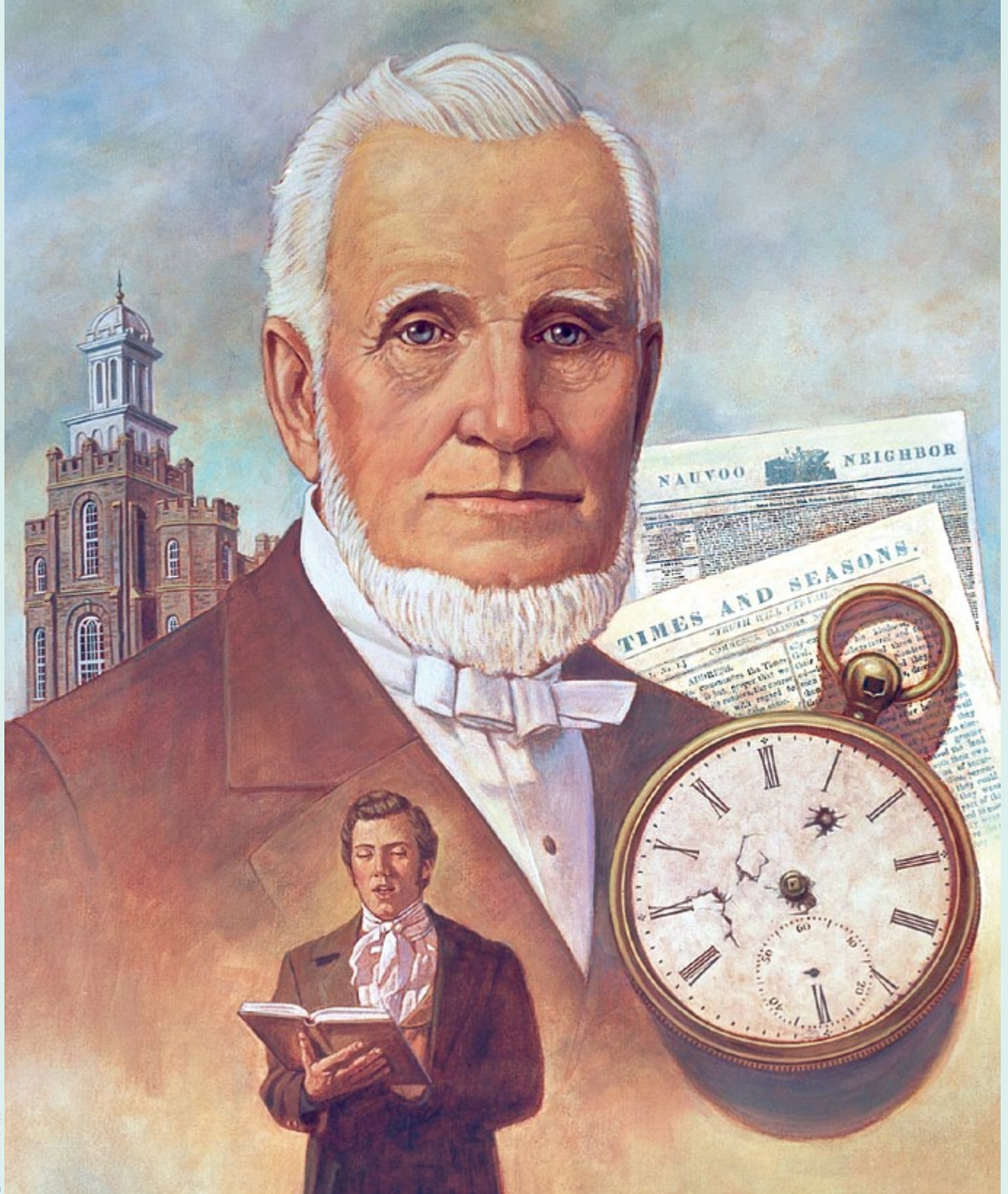
*우리는 간혀버린
그 병사를 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격려하고 그
노력을 응원하며
그녀의 성공에
기뻐할 수 있었다.*

격려에 그녀는 주저하면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까 걸어온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조심스럽게 다시 밟아 가면서 지뢰밭을 빠져나왔고, 마지막 걸음을 떼고서 그녀를 기다리던 우리의 품으로 몸을 던졌다. 길 양옆에 서 있던 많은 병사들은 그녀의 귀환을 환영하면서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두려움의 눈물은 웃음과 포옹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실제로 지뢰밭 가장자리에 설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한 곳을 떠나 삶의 지뢰밭에 갇혀 버린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 젊은 병사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외롭고 두려우며 불확신에 차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병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길 옆에서 자신을 응원해 주는 팀, 그녀가 돌아오길 바라며, 그녀를 포기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인도하고 격려해 준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지뢰밭에서 걸어나가야 했지만 우리는 그녀가 그렇게 할 힘을 찾도록 힘을 합쳐 도왔다. 결국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기쁨으로 그녀의 구조를 축하했다.

영적인 구조 역시 그와 같이 극적일 수 있다. 가족, 친구, 와드, 혹은 지부로서 도움의 손길을 뻗을 때 우리의 노력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 병사의 생명을 구한 것은 시의적절한 격려의 말과 인도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영적인 암흑의 위험에서 구조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들이 결국은 돌아오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생에서 잠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교리와 성약 18:15 참조) ■

러셀 웨스트가드는 미국 버지니아 주에 산다.



삽화: 로버트 티 버렛

존 테일러

존 테일러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카테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조셉 스미스는 테일러 장로에게 “슬픔에 잠긴 나그네”(찬송가, 30장)를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 순교를 앞둔 선지자에게 그 노래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존 테일러는 순교의 현장에서 있었으며 그 역시 총알을 네 번이나 맞았지만 목숨을 구했습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총탄은 그가 가지고 다니던 주머니 시계를 맞혔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테일러 회장은 수많은 교회 출판물을 편집했고, 유타 로건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자 너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현명한 부모는 회복력과 자립의 원리를 가르칠 것이다. 이번 호 10쪽에 나오는 “자녀를 회복력이 강한 아이로 키우기” 기사에는 회복력이 강한 자녀가 어려움과 변화에 잘 대처하며,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지적이 실려 있다. 20쪽에 나오는 “자립의 원리대로 생활하기” 기사에는 자립이 선택 대리인이 될 능력을 배가시켜 준다는 가르침이 실려 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